

윤석열 대통령, 57회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5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군용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부족했음을 보여줬다"며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보여줬다"며, "우리가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도 경제가 어렵고 좋지 않은 상황을 우려하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개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 공시제도와 같은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는 공인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을 보고했다.

신산업 육성전략에는 친환경·첨단 선박, 스마트 블루 푸드 등 5대 신산업분야를 토대로 현재 15조 원 규모인 신산업 시장을 2027년까지 2배로



키우는 구상을 담았다. 정부도 해양수산 신성장 분야 글로벌 상위 10% 내에 드는 선도기술 5개 확보를 목표로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물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추가되는 수산물은 가리비, 멧게, 방어, 전복, 부세 5종이다.

현재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에 관한 7가지 사유가 인정돼야 '체불 청산 지원' 용자를 받을 수 있던 제도는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임금채권 보장법이 개정된다.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변제금 장기 체납 사업주의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군 복무 중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훈보상 대상자

인정 기준이 완화되고, 경상북도 관할인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내년 7월 1일 편입하는 내용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의 위촉 시 한 분야 경력자만 채용할 수 없게 공무원 징계령이 개정되는 등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46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 1건 등이 의결됐다. 최광수/기자

'밀키트' 나트륨 함량 높아...서울시, "국물은 남기고 채소 곁들여 드세요"

서울특별시 소비자가 증가하는 식품의 영양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품종 4종(감바스 알아하이요, 부대찌개, 불고기전골, 짬뽕류)을 선정하고, 식약처 식품안전포털에서 '간편조리세트'로 검색되는 100개 제품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서 '나트륨 함량'을 검사했다.

밀키트란 식사(meal) 키트(kit)를 뜻하며, 손질된 요리재료, 필요한 양념, 조리법으로 구성된 소비자가 직접 조리해 섭취하는 제품이다. 밀키트는 현재 식품유형 '간편조리세트'로 분류되어 영양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어서, 소비자가 영양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밀키트 100개 제품(감바스 알아하이요 22개, 부대찌개 33개, 불고기전골 23개, 짬뽕류 22개)을 검사한 결과, 51개가 1인분의 나트륨 함량이 1일 나트륨 기준치(2,000mg)를 넘었다. 제품은 부대찌개 31개(31/33), 불고기전골 6개(6/23), 짬뽕류 14개(14/22)이다.

품목별 밀키트 1인분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부대찌개 2,762mg, 짬뽕류 2,610mg, 불고기전골 1,560mg, 감바스 알아하이요 1,066mg로 나타나, 1일 나트륨 기준치(2,000mg)의 53%에서 최대 138%까지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대찌개, 짬뽕류 품목은 1인분만 먹어도 1일 나트륨 기준치(2,000mg)를 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감바스 알아하이요와 불고기전골 품목은 1일 나트륨 기준치의 50%(1,000mg)를 넘는다.

서울시는 이번 100개 제품에 대해 '영양정보 표시' 여부도 확인했다. 조사 결과, 100개 중 21개(21%) 제품만이 포장지나 판매 누리집 등에 자율적으로 영양정보를 표시했다. 이에 시는 소비자가 영양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제조사에 자율적 영양표시를 독려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시민이 밀키트를 섭취할 때 나트륨을 저감 섭취하려면 ▲동봉된 조리법을 따르되 양념의 양을 조절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채소를 추가해 조리하거나 함께 섭취 ▲국물 제품은 국물을 적게 섭취 ▲영양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잉 섭취시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건강을 위해서는 '생활 속 나트륨 줄이기' 실천 습관이 중요하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은 건강을 위해 밀키트 섭취 시 양념을 줄이거나 채소를 곁들이는 방법으로 '나트륨 저감' 식습관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지아/기자



서울시 올해 '제야의 종' 행사, 보신각-광화문-DDP 삼원 생중계로 본다

파워 유튜버 22명 함께 구독자 2,103만 명에 생중계도

서울시는 12월 31일 22시 50분부터 개최되는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연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마음의 울림, 희망의 시작'을 주제로 광화문광장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생중계하여 관람 인파를 분산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한다. 세 곳의 행사 모두 익일 1시까지 운영한다.

광화문과 DDP의 현장 실황 및 보신각 타종 장면을 주관 방송사인 YTN을 통해 보신각-광화문광장-DDP에 삼원 생중계 하고, 광화문광장과 DDP에는 각각 330인치 차량 스크린 전광판을 설치하여 광화문과 DDP에서도 타종행사 전체를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신각 타종식에 참여하는 시민대표 10명에는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인 축구선수 조규성 등 올해 우리 사회에서 화제가 된 인물들이 선정됐다. 국가대표로서 국위를 선양한 인물, 우리 이웃을 정의롭고 안전하게 지켜준 인물,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자기 분야에서 성과를 낸 인물 등 7개 분야를 대표하는 10명의 시민이 뽑혔다.

▲자유·평화(구속정 대한민국 전물군정 미망인회 서울특별시 지부장) ▲시민·안전(김준경 소방장, 최형진 강남 순환도로 의원) ▲복지·봉사(김동준 서울시 복지상 대상 수상자, 응우엔티탐명 서울시 봉사상 대상 수상자) ▲과학(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문화예술방송(정은혜 미술작가) ▲시정홍보(김태균 개그맨·서울시홍보대사·서울시 환경상 우수상 수상) ▲국위선양(조규성 축구선수, 박지원 쇼트트랙 선수)가 각 분야의 타종인사로 선정됐다.

또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 인기 1인 창작자(파워유튜버) 22명(▲리월드(구독자 331

만) ▲울블랑TV(구독자 195만) ▲Korean Dost(구독자 143만) 등)이 이번 행사에 함께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1인 창작자 각 채널의 구독자 수를 합치면 총 2,103만 명에 이른다.

이번 '제야의 종' 타종식에 참여하는 창작자들은 '2022 서울라이트 DDP'와 연계하여 서울라이트 행사와 보신각 타종행사를 각 채널에 선보인다. 행사 당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각 채널의 특성에 맞는 개별 콘텐츠를 촬영하여 행사 이후 선보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타종행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불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보신각 특별무대를 마련해 식전·후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식전 공연으로 국악밴드 이상과 국악인 김주리의 퓨전국악공연을 선보이고 ▲주제공연으로 팝핀현준과 국악인 박애리가 참여하는 공연을 펼친다.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 2분 동안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퍼포먼스도 마련될 예정이다. ▲식후 공연으로는 팝페라 바리톤 장철준과 팝소프라노 윤나리가 참여하는 팝페라 공연이 열린다.

이외에도 '2022 서울라이트(광화, DDP)'의 주요 장면을 편집 송출하여 보신각 타종행사 현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영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광화문광장에서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서울라이트 광화'와 '2022 서울빛초롱'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서울라이트 DDP'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12월 31일(토)에는 두 곳 모두에서 각각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 작품으로 밤하늘을 밝힌다.

'서울라이트 광화'는 12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개최되는 미디어아트축제로, 광화문광장 전역과 광장 인근 건물 3개소(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KT빌딩)를 배경



으로 펼쳐진다. '2022 서울 빛초롱'은 12월 19일부터 31일까지 '함께 하는 동행의 빛'을 주제로 진행되는 빛 조형물 축제다. 두 축제 모두 올해 처음으로 광화문에서 개최됐다.

두 행사 모두 매일 18시부터 22시까지 개최되나,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는 익일 1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 특히 31일 24시부터 10분간, '서울라이트 광화'에서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 희망메시지'를 표출하여 광화문의 밤을 수놓는다.

'서울라이트 DDP'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DDP의 대표축제다. 올해의 대표행사인 'DDP 우주와의 만남, Rendez-Vous(랑데-부)'는 12월 17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매일 19시부터 22시까지 DDP 외벽을 밝힌다. '우주적 삶'이라는 주제를 미디어아트로 표현한 작품들이 표출된다.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는 31일 23시 45분부터 개최된다. 'HELLO 2023, Heart-Beat New Year'의 제목으로, 카운트다운 작품을 전시한다. 밝아오는 새해에게 '안녕' 인사를 건네고, '두근거림'으로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는 뜻을 담은 다.

한편, 서울시는 행사 당일인 31일 21시부터 익일 1시 30분까지 보신각 일대 차도를 전면 통제하고, 23시부터 익일 1시 사이에는 지하철이 1호선 종각역을 무정차 통과한다. 행사 후 귀갓길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보신각 일대에는 '합동상황실' 등 11개 부스와 차량전광판 4개소가 설치되고 약 1,000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관리에 나선다.

행사에 따른 교통 통제구간과 대중교통에 대한 정보는 서울 교통정보 누리집과 모바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은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3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행사를 철저히 준비 했다"며 "특히 방송사의 3원 생중계, 파워 유튜버 22명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달드릴 계획이니 온·오프라인에서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전남 e-모빌리티, 네팔 수출길...해외시장 진출 훈풍

전라남도 지역의 대표적 e-모빌리티 기업인 (주)대풍이브이자동차가 네팔의 전기자동차 업체(NEPAL KOREAN E.VEHICLE COMPANY)와 1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주)대풍이브이자동차는 영광 대마전기산단에 입주해 농업용 다목적 전기운반차, 삼륜전기차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대표적 e-모빌리티 기업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주)대풍이브이자동차는 5년간 1천만 달러(한화 약 128억 원)의 e-모빌리티 제품을 네팔로 수출하게 된다. 2023년 4월까지 초도물량으로 삼륜전기차 100대, 다목적 전기운반차 50대, 이륜전동차 51대 등 총 201대를 수출하고 이어 5년간 계약물량을 수출한다.

네팔은 최근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인구 3분의 2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중심국가로 전남에서 생산되는 농업용 전기운반차 등 e-모빌리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수출계약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얼어붙은 e-모빌리티 수출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돼 도내 e-모빌리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민일기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도내 e-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외 시장 규모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남에서 추진 중인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글로벌 특구'로 확대 추진해 e-모빌리티 기업이 친환경차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동남아 등 해외시장을 빠르게 선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e-모빌리티 보급·확산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도내 생산 초소형전기차 및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추가 지원, 도내 생산 농업용 전기운반차량 구매보조 등 e-모빌리티 수요 창출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내 e-모빌리티 시장 확산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정해명/기자



홍정민 의원, 일산지역 발전예산 수호역할 톡톡

- 일산병원(어린이재활병원)·국립암센터(암데이터센터) 증액 등 일산의료 강화
- 킨텍스제3전시장·GTX-A·대곡소사선 등 지역 예산 4,715억원 확정
- 홍정민 의원, "자족도시 일산과 국가 발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637조 7,000억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산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사업과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관철시키면서 의회에 강한 일산의 위상을 한층 강화시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홍정민의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인건비를 보전받는 사업이나 23년 정부 예산안에 일산병원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병원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홍정민 의원이 국회 예산심의를 관철시켜 어린이 환자가 장애통과를 최소화하고 재활치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는 탄탄한 의료기반이 마련됐다.

도약을 위한 주춧돌이 마련됐다.

이밖에도 일산과 관련된 예산으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145억원, ▲GTX-A 3,395억원, ▲대곡·소사선 1,084억원, ▲고양지원 별관 신축 60억원 등 총 4,715억원 규모 사업이 2023년 예산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제로 공릉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의 환경개선사업에 6억원 교부도 확정됐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교통동인근 주민 2만 3천여명의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민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력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500억원 증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정보 조사사업 8.5억원 증액, [중소벤처기업

부] ▲소상공인지원(유자) 특별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증액, ▲긴급경영안정자금(유자) 1,089억원 증액, ▲창업사업화지원 58억원 증액, ▲창업저변확대 17억원 증액,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 5억원 증액 등 산자중기분야 예산 증액 성과를 거뒀다.

홍정민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 19.7억원 증액, ▲청소년안전망운영 10.4억원 증액, ▲스토파키퍼 해자지원 7.1억원 증액 등 여성·청소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증액을 일궈냈다.

홍정민 의원은 "2023년 예산이 민생경기 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자족도시 일산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더 행복한 시민교통 develop, 부산광역시 벤치마킹 실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더 행복한 시민교통 develop」(대표 김영식)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부산광역시 교통환경시스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현장방문을 통해 교통관리 시스템 성공사례를 수집하는 등 용인시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주요 일정으로는 부산광역시 택시 운송조합을 방문해 부산의 택시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택시 회원 조합원으로 된 단체의 '친절한 택시, 편리한 택시, 안전한 택시'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와 사업 추진 실적 등 질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부산광역시 교통정보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며 교통시설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과 국토관리청,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총 9개 유관기관의 교통정보 연계 시스템을 통한 교통정보 통합DB 구축 시스템 사례를 전해 듣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실을 둘러봤



다. 김영식 대표는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통해 대중교통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뜻깊다. 부산광역시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용인특례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더 행복한 시민교통 develop」는 김영식(대표), 안치용(간사), 김운봉, 김희영, 신민석, 기주옥, 김태우, 안지현 의원(8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특례시 시민 편의를 도모할 교통환경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부산시의회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 지지 호소에 나설 예정

3개 그룹 T/F팀 구성, BIE 회원국 직접 방문 부산 유치 홍보 활동 전개 예정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0월 제1차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2030 엑스포 부산유치를 이끌어 내는 등 상당한 성과를 도출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제1차 홍보 활동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BIE 현지 실사 대비 제2차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홍보가 필요한 BIE 회원국을 직접 방문하고자 한다.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홍보 활동은 현재 정부와 부산시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유치 활동에 발맞춰 시의회 차원에서 2030 엑스포 유치 홍보에 적극 동참하고자 2022년 제1차 홍보 활동에 이어 2023년 개최 결정까지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유치 활동은 BIE 현지실사 전인 '23년 2월 비회기 중 BIE 회원국(170개국) 중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유럽 중심 3그룹으로 나누어 방문단을 구성하여, 엑스포 부산 유치를 외쳐 나갈 것이다.

이번 홍보 활동은 제1차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 홍보 활동과 마찬가지로 T/F 형태로 그룹별 8~9명씩 구성했으며, 특히 2차 홍보 활동에는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도 참여하여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22. 12. 28 15:00 2030세계박람회 홍보 국외출장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

고, 제1차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 홍보활동 주요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미미한 점을 보완, 국가별 관심 사항에 맞춘 공유가능 아젠다를 적극 발굴하여 제2차 홍보 활동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주요 활동은 1차 홍보 활동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BIE 회원국 대사관을 통해 관계사 면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산시가 가진 지정학적 장점과 개최 도시로서의 부산이 가진 의미, 개최 당위성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부산시와 함께 부산광역시의회 또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총력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 홍보 국외출장을 준비한 강무길 운영위원장장은 "정부와 부산시가 모두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애쓰고 있는 만큼 부산시의회도 힘을 보태고자 제1차 홍보 활동에 이어 제2차 BIE 회원국 방문을 추진하게 됐으며, 특히 지리적 한계로 직접적인 홍보가 어려운 중점으로 의회가 직접 방문, 부산시의회가 앞장서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지지를 거듭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송중진/기자

최진혁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지도부와 연말 연탄나눔봉사 함께해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지난 21일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구룡마을 연탄배달 봉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100일을 맞아 오전 10시부터 진행됐으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태영호 국회의원, 유경준 의원, 김상훈 의원, 조성명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및 청년당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1만장을 기부한 국민의힘은 이날 지게를 메고 한 시간 이상 3,000장의 연탄을 직접 날라 구룡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했으며, 봉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정 위원장이 준비한 떡볶이와 어묵을 나눠 먹으면서 휴식의 시간을 가

졌다. 최진혁 의원은 "오늘 행사는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추진된 행사였지만 이를 정치행사 기자회견이 아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의 정책기조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써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특히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직접 만나 이렇게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올해 겨울은 유난히 더 추운데 오늘 이러한 조그마한 도움을 통해서라도 우리 이웃들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 서울시의회의원으로서 서민들의 민생을 살피고 챙기는 시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날 봉사를 마쳤다.

최광수/기자

평택시의회 이종원 의원, 청소년 사이버윤리 의무교육 간담회 개최

평택시의회 이종원 의원은 2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청소년 사이버윤리 의무교육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종원 의원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최중범 행정자치국장 등 관계 공무원, 국제대 손신영 이사장과 오경숙 교수, 푸른시대 교육연구소 윤상용 대표, 지역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상용 대표의 사이버윤리 교육 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특강에 이어, 오경숙 교수가 사이버윤리 교육의 종합적 관리 기관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평택시 관련 부서-교육지원청-학부모-청소년-센터를 연계한 사이버윤리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학부모 단체장들은 ▲청소년 사이버윤리 교육의 일원화 ▲사이버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설립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이버윤리 교육의 적극적인 홍보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지원 등을 평택시와 교육지원청에 건의했다.

이종원 의원은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올바른 사이버윤리관이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효과적인 사이버윤리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박류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로 534 4층 411호

경기본사 :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단의수량 측정 논란가열

마이크로파법 문제 해결해야 국민적 공감대·공론화 절실

이태원 참사의 후유증이 심화되고 국정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건설분야의 안전문제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광주 화정아파트 공사현장의 붕괴사고 이후 분기별로 각 지방청을 통해 레미콘 등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해오고 있다.

지난 5월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사고는 관리부실 문제로 야기됐으며, 이 가운데 콘크리트 불량률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8월 말 고질적인 콘크리트 불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위수량 시방서(KCS 14 2000)를 발표했으나 새로 편입된 마이크로파법 측정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마이크로파법은 한국콘크리트 학회의 회원으로 알려진 특정대학의 특정교수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란의 쟁점은 마이크로파 측정기의 경우 사전에 입력데이터를 설정, 수치조작이 가능하고 사후 관리를 위한 기록을 남기지 못한다게 주요인. 한 전문가는 "단위수량 측정기는 센서 등 전자적인 구성요소를 고려해 과학적인 입·출력 보관이 가능해야 사후관리가 가능한다. 특정 마이크로파 측정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2012년부터 시행돼온 3가지 단위수량 측정 방식(고주파 가열법, 에어미터법, 정전용량법)은 공식적인 배합표 등을 입력하게 됨으로써 사후 확인 가능하고 조작을 못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 산하 건설기준센터는 모든 측정기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논란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예상치 입력데이터에 따라 조작이 가능한데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고 '국가표준' 자체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 마이크로파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단위수량 측정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준센터측은 또 건설기준에 규정된 마이크로파법은 다양한 주파수 영역과 골재의 함유량을 고려, 다양한 종류의 콘크리트에 대한 단위수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했고, 특정회사의 측정기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주장했다. 편파적이거나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장 관계자는 "현재 수입산 마이크로파 측정기의 선도도가 높지만 제대로 검증이 안된 게 사실인데, 남기도 내년 5월은 될 것 같다"고 전망하면서 "국산이 특정 외산에 지배당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고, 사후관리가 안되는 마이크로파법을 감싸고 보호하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지금이라도 서두르지 말고 국토부-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콘크리트학회로 이어진 폐쇄적(?)인 정책라인을 넘어 국민적 공감대·공론화를 통해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장인수/기자

시민이 뽑은 2022서울시 10대 뉴스, 1위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주요 정책 30개 대상 온라인 투표...시민 44,943명 참여

올 한해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서울시 정책은 '모아주택·모아타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1월 25일부터 12월25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 결과, '모아주택·모아타운'이 6,510표(7.35%)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5,749표, 6.49%),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5,056표, 5.71%), '책 읽는 서울광장'(4,993표, 5.64%)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4,915표, 5.55%) 순으로 2~5위를 차지했다.

올해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 투표는 '약자와 동행'하고 '매력있는 국제적 선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시의 고민을 녹여낸 정책 3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투표에 총 44,943명이 참여했고, 1인당 최대 3개 정책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총 투표수는 88,569표였다.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모아주택·모아타운'과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이 각각 1,2위를 차지해 부동산,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정책이 시민들의 호응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약자 대상 정책인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가 3위를 차지해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노인층 중심의 디지털 소외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이 확인됐다.

특히, 올해 서울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구현을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주거 약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료 약자),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디지털 약자) 등 일명 '약자와의 동행' 정책들을 다수 추진했는데 새로운 시정철학에 대한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책 읽는 서울광장'이 4위로 문화행사로서는 유일하게 순위권에 포함됐으며,

5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및 8위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은 2021년 '시민들이 기대하는 서울시 10대 뉴스' 각각 5위, 2위에 선정된 정책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올해 '사랑받은' 정책으로 재선정됐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투표 결과는 네이버 및 다음에서 '서울'을 검색하거나, 서울시 누리집을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내외 거주 외국인과의 시정 이



해도가 높은 시충입기자(42명 참여, 121표)를 대상으로 별도 투표를 실시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 외국어 누리집을 통해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결과, 1위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구축'(676표, 5.99%), 2위는 '서울런'(674표, 5.97%), 3위는 '엄마야 행복프로젝트'(653표, 5.78%)가 선정되어 외국인에게 서울은 첨단 산업이 발전한 세계를 선도하는 도시, 약자와 상생하는 도시의 매력과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충입기자 대상 투표 결과 '서울

시 안심소득'(15표, 12.40%)과 '엄마야 행복프로젝트'(12표, 9.92%)가 각각 1, 2위를 차지해 시정철학을 반영한 주력 시정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일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모아 다시 한번 선보이고, 시민들의 응원으로 한해 시정을 뜻깊게 마무리하는 이벤트"라며 "시민들께서 투표로 많이 응원해 주신만큼 2023년에는 더욱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송파는 지금, 청년으로 빛나다!...송파 청년정책 성과보고회 개최

▲청년네트워크 ▲창업도전프로젝트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등 활동성과 공유·소통

송파구는 오는 12월 29일(목)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에서 올 한해 청년들이 함께한 청년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2022. 송파청년정책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는 ▲송파청년네트워크 ▲송파청년 창업도전프로젝트사업 ▲송파 ICT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체 등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 청년정책사업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는 2019년 송파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청년 관련 의제 발굴, 제안, 지역 청년교류 활성화, 청년정책 관련 구정활동 및 행사 참여 등 청년문제 대응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청년 45명으로 구성된 2022 송파청년네트워크의 주도로 4개 분과에서 5개 분과(홍보·소통, 주거·환경, 문화·예술, 취업·창업, 참여·교육)로 개편하고, 총 50회의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진행, △'2023년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 지원사업 공



▲청년고민상담소 전지적 청년시집에서 서강석 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모'에서 특화사업 4개를 직접 제안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만 유일하게 4개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청년네트워크는 △지난 9월 석촌호수에서 찾아가는 청년고민상담소 '전지적 청년시집'을 개최해 8개의 상담소를 운영, 120명의 청년 상담을 진행했으며, △퍼스널 컬러, 면접스피치 등 취·창업 관련 강의를 42회 진행해 송파 청년 취·창

업 멘토링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큰 호평을 얻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먼저, 청년네트워크 활성화와 정책 발굴 및 추진에 기여한 위원에 대한 표창 수여를 진행한다. 이어서 송파 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자세대정 기능성 의자 개발로 성장하고 있는 ㈜누지 대표와 송파 ICT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9개 스타트업 업체 중 의뢰데이터 분

석 플랫폼을 통해 큰 성장을 이룬 (주)차라투 주식회사 대표가 그 동안의 성과와 경험담을 참석자들과 공유한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송파구 신규사업인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카페 청년 봄'에 참여해 호평을 얻었던 청년예술가 4명(손영경, 최유나, 조세희, 류정현)의 작품들을 전시해 행사를 더욱 빛낼 예정이다.

이외에도 ▲송파구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과 새해 소망을 모아보는 '모자이크 그림 퍼포먼스' △청년슬로건 퍼포먼스 △팀 퍼니스트 공연'까지 다양한 이벤트로 따뜻하고, 즐거운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차가운 머리가 아닌,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행정을 강조하며,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열정을 동력으로 살아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송파를 만들고, 다양한 직군에 속한 청년들의 힘찬 출발에 송파가 든든한 힘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2023년 검은토끼의 해 맞아...성동구 응봉산 해맞이 축제 연다

서울 성동구가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3년 만에 응봉산 현장에서 '2023년 응봉산 해맞이 축제'를 개최한다.

'응봉산 해맞이 축제'는 성동구 주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며 매년 1월 1일 진행됐지만,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개최됐다. 내년에는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3년 만에 2023년 1월 1일 오전 7시 응봉산 정상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응봉산 팔각정은 성동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해를 바라볼 수 있는 명소로 꼽힌다. 행사에 앞서 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부구청장 주재로 안전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행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행사 당일에는 응봉산 정상으로 통하는 이동로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동시에 CCTV 집중관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요

지점별로 안전요원 84명을 배치한다.

행사 당일 해맞이 축제는 관내 풍물단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토끼띠 주민과 함께하는 대북타고, 남성 4인조 팝페라 그룹 카이로의 공연, 소원나무 작성 등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찬 프로그램들로 진행된다. 이 외에도 새벽 시간 해맞이 인파를 위해 응봉산 정상 인근 배드민턴장에서 응봉동 주민단체가 따뜻한 커피와 먹거리 장터도 준비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그동안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느라 모두들 고생이 많으셨다"며 "오랜만에 해맞이 축제를 여는 만큼 철저한 안전 점검과 만반의 준비로 주민들과 함께 응봉산에서 희망찬 계묘년(癸卯年) 시작을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금천구, 재난대비 '통합지원본부 역량강화 평가' 최우수구 선정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을 측정하는 통합지원본부 역량강화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1위

금천구는 서울시에 주관하는 '2022년 통합지원본부 역량강화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통합지원본부는 재난상황 발생 시 현장에 긴급으로 설치돼 수습 및 복구 활동을 통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 안전교육 △ 시 주관 통합지원본부 훈련 참여율 △ 통합지원본부 운영 △ 자체 훈련 4개의 항목에 대해 진행했다.

금천구는 재난 현장에서 통합지원본부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안전한국훈련 등 각종 재난 대응을 위한 훈련에 참여했다. 또한

금천 소방서, 금천경찰서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체 훈련 등으로 통합지원본부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온 결과를 인정받아 자치구 1위인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금천구의 수상은 최근 재난상황 시 현장대응 능력이 강화되고 있는 시정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통합지원본부 전문 차량 확충으로 현장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최우수구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는 더욱 구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용인특례시, 시의회에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27일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른 재의 의결

용인특례시는 28일 용인시의회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시 상임위에서 부결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별도 명시해 사실상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에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처리한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

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 모집 정도만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와 관련해서 예배, 법회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정치 성격을 띤 행사들이 공공시설에서 열리면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공공시설이 정치선전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가 사라져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에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

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봤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공공시설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공시설의 사용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용인시의회에 재의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며, 의회는 10일 이내에(폐회·휴회 기간 불산입) 재의결 해 다시 집행부로 통보해야 하는 만큼, 내년 2월 제270회 용인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의결하게 된다.

시의회가 이 개정조례안을 처리한 직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한 이상일 시장은 "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조혜영기자

이 공공시설을 자신의 정치홍보 장소로 삼겠다고 하는 민주당 한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 눈치를 보기 바란다"며 "공공시설이 설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군, 전국 최초로 도로명주소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배부

양평군이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양평군 공식 카카오톡 채널 '양평톡톡'을 통해 도로명주소 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배포되는 이모티콘은 다람쥐와 여우를 형상화한 '도람쥐'와 '모로리'로, 도로명주소에 능통한 '도람쥐'가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모로리'에게 도로명주소 활용법을 알려준다는 설정이다.

이모티콘은 총 16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년 인사와 더불어 각 캐릭터의 일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카카오톡을 통해 군민뿐 아니라 전국의 청·장년층에게 양평군 도로명주소 캐릭터를 널리 홍보하기 위함이며, 자치단체 최초로 도로명주소 캐릭터를 개발하고 이모티콘을 배포하는 우수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친구 메뉴에서 '양평톡톡'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받을 수 있으며, 2만 5,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이모티콘은 내려받은 시점부터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가 도로명주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가 더욱 많이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성훈기자



© 2022 YANGPYEONG GUN. All rights Reserved.

시흥시, 재난안전 분야 평가 9관왕 수상 달성

시흥시는 올해 치러진 각종 재난안전 분야 평가에서 9관왕을 수상해 재난안전관리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시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4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과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재난관리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335곳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로, 특히 △재난관리기금 관리 실적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대비체계 등의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외 민방위 분야에서도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과 시설장비 관리 등을 철저히 해 주민안전 확보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이다. 특히 시는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금 외에도 매년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응력 제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안았다.

재난안전통신망을 훈련에 활용해 실시간 상황 공유체계를 강화한 점과 국민체험단이 참여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이 외에도 개인부분 표창도 두드러졌다. 코로나19 대응, 안전문화 활성화, 재난관리자원 업무추진, 풍수해보험,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분야 등 재난안전 분야 전반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다수의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올 한 해 많은 수상의 결실을 맺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57

신우용기자

하남시, "교산지구 유기견 피해 막아야!" 민관협력 공동대응

하남시는 지난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하남소방서 등 6개 기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유기견 발생 예방과 들개 피해민원에 대한 공동대응 민관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동물복지 및 시민안전에 위해 유기견 예방과 동물등록제 지원, 실외견 중성화, 들개 포획, 유기견 입양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신도시 교산택지지구의 주택과 창고 등에서 반려견이나 마당개로 사육하다가 버려진 야생 개들이 인근 농장에 나타나 가축을 공격하는 사건 등이 발생해 긴급한 민관협력 공동대응 조치가 요구됐다.

이에 간담회 참여기관들은 춘궁동 통장단의 피해증언을 듣고, 들개 출몰지, 피해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소방서 긴급대응팀의 포획신고 안내 및 포획과정의 예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어 동물구조단체의 동물학대, 유기견보호소 관리현황 등 상호간 협조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교산지구 유기견 예방과 들개 포획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공동대응 하기로 의견

을 모았다. 하남시도 동물구조팀(2인 1조) 2개조 운영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및 등록제 확인, 택지지구 LH 보호지역에 대한 공동대응 민관협력 및 벌금 부과 등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야생견 출몰에 따른 피해 및 지역 확인 ▲기관별 야생견 피해 민원 상황별 대처 매뉴얼 배포 ▲야생견 포획 업무 유관기관 공동대응을 위한 유기견 협력체계 구축 ▲야생견 출몰지역 현수막 설치(들개주 및 들개대처법 안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민간 동물구조 전담 업체에 포획용역계약 및 포획 추진(추경예산 반영), 유기견 포획을 효율적 운영, 유기견보호센터 수용공간 확장 및 입양 홍보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다경 도시농업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유기견 발생예방과 들개 피해민원으로서도 협력해 공동대응 하면서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강호기자



오산시 에너지와 여성, 저소득층 아동 성탄절 행사 등 연말 복지지원사업 마쳐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은 연말을 맞이해 사단법인 에너지와 여성 주관으로 진행한 복지지원사업이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행사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복지관에 따르면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지원사업에 총 110가정이 참여했으며, 복지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장수 사진 촬영, 이번달 초 가족 사진 촬영을 마쳤고, 지난 24일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했다.

에너지와 여성은 오산시 취약계층을 위한 "차한잔 해요" 일일 기부카페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희 에너지와 여성 회장은 "오산지역 내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다



양한 지역사회 복지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언제든지 우리 지역

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양시현기자

한진 오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오산지역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데 기부와 함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면 좋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오산종합사회복지관과 (사)에너지와 여성은 오산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다.

에너지와 여성은 에너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정보교류, 협력활동을 통해 각종 에너지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에 힘쓰고 환경보전과 풍요로운 생활문화 창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순수한 민간단체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91%가 첨단업종. 지난해 매출 120조8천억 원 기록

경기도 2022년 제1,2 판교테크노밸리 총괄 실태조사 결과 발표

판교테크노밸리 1,642개 입주기업 중 91.2%는 첨단업종이며, 87%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매출액은 약 120조 8천억 원에 달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7월부터 11월까지 제1·2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기업은 1,642개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87%를 차지했다. 중견기업은 7.4%, 대기업은 4.2%였다.

제1판교는 중소기업 84.4%, 중견기업 9.3%, 대기업 5.3%로 지난해 중소기업 85.5%, 중견기업 7.5%, 대기업 4.8%와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은 감소하고 중견기업·대기업의 비중이 증가했다.

제2판교는 전체 365개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6.5%를 차지했다.

1·2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2021년 매출은 약 120조 8천억 원이며 제1판교가 119조 7천억 원으로 99%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매출 109조 9천억 원에 비해 10%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특히 생명공학기술(BT)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영향으로 전년도 9조 3천억 원 대비 59% 상승한 14조 8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정보기술(IT) 66.8%,

생명공학기술(BT) 14.4%, 문화콘텐츠기술(CT) 10%, 나노기술(NT) 1.1% 등으로 첨단업종이 전체의 약 91.2%였다. 전년대비 정보기술(IT)은 2.2%, 생명공학기술(BT)은 1.0% 증가했으며, 문화콘텐츠기술(CT)은 3.0% 감소했다.

상시 근무하는 노동자 수는 7만 3,443명으로 전년 7만 1,967명 대비 2.0% 증가했다. 주요 연령대는 30~40대가 4만 9,653명으로 67.6%를 차지하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 전체 임직원 중 연구인력은 36.2%(2만 6,606명), 여성인력은 28.9%(1만 3,103명)으로 모두 전년도 대비 비중이 증가(여성인력 1.2%, 연구인력 1.6%, 신규인력 1.6%)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단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현태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가 서로 연계해 입주기업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제1·2판교테크노밸리를 운영하고 입주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 김동연, "공무원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김동연 지사, 28일 도정 열린회의에서 "공무원의 관성과 타성에서 벗어나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장들에게 공무원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2월 도정 열린회의에서 "얼마전 7차에 걸쳐서 경바시 시즌1을 했다."

앞으로의 도정과 경제의 역동성, 세상이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는 자리였는데 앞으로 경바시를 통해 공무원의 관성과 타성, 안정성에 기반한 틀 깨기 어려운 의식구조와 행태를 바꿔놓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물론 그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우리 행정을 단단하게 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공무원이 갖고 있는 틀을 깨고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경바시 시즌1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월 초에 실국장·기관장 워크숍과 과장급 워크숍을 하려고 한다. 과거와 같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을 깨는 그런 일들을 조금씩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 창의를 생기고 정책시행에 있어서도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가 될 것"이라며 "전례답습형 행정이 아니라 안정성을 담보하되 거기에서 창의성과 상상의 나라를 펴는 그런 분위기를 더 높게 평가하고 우대하고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런 취지로 다음 회의 때는 자리를 한번 바꿔보자"며 도정 열린회의의 기존 고정석을 벗어나 공공기관장들이 간부들 앞줄에 앉아서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경기도를 포함해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을 언급하며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자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상황이 이렇고 우리는 이렇게 대처한다며 도민을 안심시키고 우리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신경 쓴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는



체계상 수동적으로 하는 입장에 그쳤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걸 점검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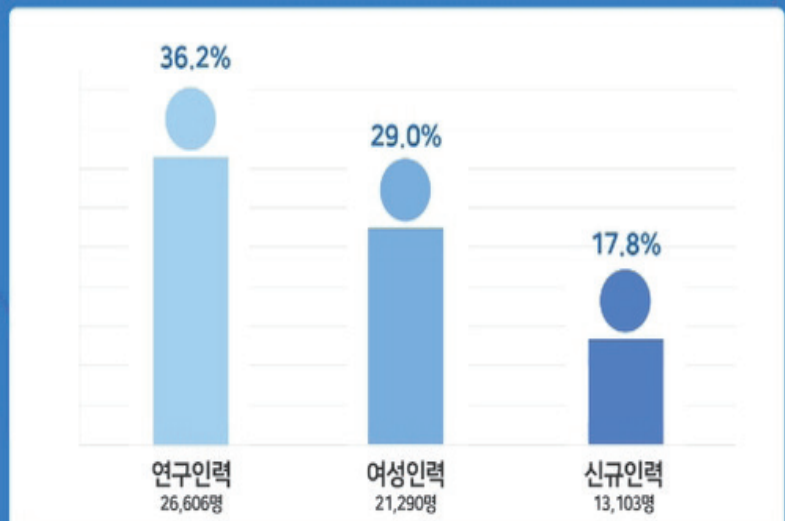
특히 김 지사는 "노인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지역화해 문제도 그렇지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대처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있어서 미흡한 것들이 있는데 경기도만이라도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새해에는 여러 정세나 상황에서 변화가 많을 거다. 이번 조직개편에 기후변화, 사회적경제, 동물복지, 미래성장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은 새로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노력"이라며 "남북문제도 이런 식으로 전개될 때 예의주시 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이고 이걸 기회로 이용하자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혜영기자

6. 임직원 현황

■ 판교기업의 전체 임직원 중에서 연구인력은 36.2%(26만명), 여성은 29.0%(21만명)이고 2021년도에 신규 채용한 인원은 1.3만명 규모(17.8%)인 것으로 조사됨



경기도교육청,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학교 업무매뉴얼 영상 콘텐츠 제작·배포

'미래교육 지원하는 교육행정' 주제, 교무학사·행정 등 8편 제작

경기도교육청은 27일 학교 현장의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 업무매뉴얼 영상 콘텐츠를 제작·배포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업무매뉴얼 콘텐츠를 다양화 요구를 반영하고, 이용자의 업무매뉴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영상 콘텐츠 형식의 학교 업무매뉴얼 제작을 추진해왔다.

영상 콘텐츠 주제는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으로 민선 5기 경기도 교육 정책과 최신 교육행정 업무 관련 제도, 지침, 법령 등을 주제로 총 8편(교무학사 4편, 행정 4편)으로 제작했다.

교무학사 분야는 ▲교원의 복무와 근무 ▲교원의 휴가 ▲청원휴직 ▲직권유지, 행정 분야는 ▲담당 밖 재산

관리 ▲나라장터 공고 입력 ▲K-에듀 파인 수입 ▲신설학교 개교 준비 등이다.

영상 콘텐츠는 공문을 통해 각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전달했으며, 경기도교육청 e-DASAN현장지원 누리집 자료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광섭 수리학교지원과장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텍스트 형식의 업무매뉴얼을 보완하고, 현장 담당자의 업무 이해와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현장 맞춤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제1회 안성 도시계획포럼' 성료

안성시는 지난 27일 안성맞춤아트홀에서 안성시 도시계획과 관련해 '제1회 안성 도시계획포럼'을 개최했다.

안성 도시계획포럼은 도시계획, 건축 등 각 분야별 전문성과 실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이 모여 안성시 도시발전 방향 및 도시공간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회의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제1회 안성 도시계획포럼에서는 전문가 12명이 참석해 안성시 현안 진단 및 과제 도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련 용역사의 주제발표를 거쳐 패널들 간 종합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향후 2023년 상반기까지 약 5회에 걸쳐 '안성 도시계획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안성시 발전 방향, 도시기능 배분 및 공간구상, 공간배분 계획, 전략 핵심사업 발굴, 사업별 실현화 방안 등의 순서로 전문가 자문 및 아이디어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는 제2경부고속도로 및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가 확정돼 사통팔달의 교통도시로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발전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해 첨단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수준 높은 주거공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고삼호수를 비롯한



안성시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의도에 알맞게 안성 도시계획포럼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안성시의 공간발전 전략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성시의 현실적인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조혜영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외계층과 온정 나누는 '경기미 나눔행사' 개최

심시일반 모아 경기미 2천690kg 마련, 사회복지시설 10곳에 전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7일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과 온정을 나누기 위한 '경기미 나눔 행사'를 열고,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이날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미 나눔 행사에는 남경순(수원1) 부의장, 지미연(용인6) 수석대변인, 김성수(하남2) 기획수석, 김철현(안양2) 쇠신위원장,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한원찬(수원6) 교육행정위원장, 박명숙(양평1) 의원, 이인애(고양2) 의원, 서광범(여주1) 의원, 이영희(용인1) 의원, 이서영(비례) 의원, 정경자(비례) 의원 등을 비롯해 도내 복지시설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 한파 속 주춤해진 나눔 문화에 불씨를 더하고,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업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발적 의지로 마련됐다.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62명이 참여해 심시일반 마련한 경기미 2천 690kg는 이날 오순절 평화의마을(여주), 무지개동산 예가린(성남 분당), 아름다운세상(양평), 구리남양주민들

레학교(남양주), 서울음아트센터(안양), 다솜의집(용인), 신애원(고양), 해바라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파주), 나사로청소년의집(양주), 우만종합사회복지관(수원) 등 도내 10곳의 사회복지시설에 각각 나누어 전달됐다.

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 수석대변인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나눔을 통

한 상생의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며 "이번 도의회 국민의힘의 경기미 나눔을 통해 온정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는 힘이 되고,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에게는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손바닥정원은 시민들이 만들고 관리하는, 공동체 정원"

수원시, '손바닥정원 토크콘서트-다정다감' 개최

"손바닥정원은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관리하고, 손금처럼 이곳저곳으로 뻗어나가는 소중한 정원입니다. 시민들께서 함께해주신다면 10년 후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수원시가 27일 영흥수목원 방문자센터 숲향기홀에서 연 '손바닥정원 토크콘서트-다정다감'에 출연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손바닥정원의 취지는 우리가 사는 도시를 우리 스스로 바꿔나가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앞장서 추진해주시면 수원시는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드닝, 다정다감한 손바닥정원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이재준 시장과 김현 단국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디자인알레 마이알레 우현미 소장, 이법석(수원시 도시숲연합회 대표) 한일드레공통체 대표, 정원 전문가 최재혁 작가가 등이 출연했다. 시민 300여 명이 함께했다.

수원시는 시민 주도로 도시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마을 공터, 자투리땅, 유흥지 등 도시의 빈 곳을 찾아내 시민 공동체가 꽃과 나무 등을

심어 정원을 만드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손바닥정원은 주민들이 함께 조성하고, 가꿔나가는 공동체 정원"이라며 "정원 형태와 정원에 심을 식물의 종류도 공동체가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400개를 조성하고, 앞으로 4년 동안 1000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현 단국대 교수는 "이른바 '슬세권'(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는 곳)에 손바닥정원을 조성해 누구나 쉽게 정원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수원시에서 조경·정원 관리 사업을 하는 분들이 손바닥정원 프로젝트의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혁 작가는 "정원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꾸고 관리"라며 "수원시가 정원을 조성할 공동체를 양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디자인알레 우현미 소장은 "손바닥정원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손바닥정원이 전국으로 확산돼 모든 국민이 정원문화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손바닥정원 프로젝트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가보고 싶다"며 "시민이 주도해서 성공한 정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시는 '시민 손으로 정원, 시민 결의로 정원'을 비전으로 하는 손바닥정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집집마다 10그루 꽃과 나무 가꾸기 ▲5분 이내 100% 접근성 ▲모두 함께 1000개 손바닥 정원 등 3대 목표와 12개 과제로 이뤄진다.

수원시는 손바닥정원 프로젝트에 참여할 '새빛수원 손바닥정원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식물과 정원, 봉사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시민단체, 기업, 마을자치회, 상가연합회, 학교, 공공단체 등 기관·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조혜영/기자

광명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학온역 착공...광역교통망 갖춘 명품 자족도시로 도약

광명시는 28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핵심 기반 시설인 학온역 착공식을 개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위대한 광명시민의 요구에서부터 시작된 학온역이 결실을 맺음으로써, 민선7기와 민선8기의 큰 과제 하나가 해결됐다"며, "광명은 이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대전환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학온역을 품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그리고 광명-시흥선이 관통하는 광명시흥 신도시 등이 완공되면 광명시는 광역교통망을 갖춘 명품 자족도시로 도약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국가철도공단, GH공사, 광명도시공사, 광명문화복합단지PFV 등 관계기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인 학온역은 민선7기와 민선8기의 주요 공약사항으로, 광명시가 2019년 2월부터 중앙



정부에 신설을 지속 요구해왔으며 올해 4월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했다. 학온역 주변은 244만 9,000㎡(74만평) 규모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될 예정으로, 학온역이 신설되면 직주근접할 수 있는 테크노밸리로서 향후 수도권역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 들어 올 수 있고, 주거지역까지 조성되는 우수한 환경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더불어 광명동굴 주변 광명문화복합단지 17만 평의 도시개발로 인구유입 및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으로 박 시장은 민선7기 때부터 신안산선과 학온역 유치 등 필요한 철도정책을 역점정책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남북철도망을 학온역과 연결할 계획으로, 2026년 학온역이 개통되면 매우 중요한 철도역으로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서 서울 여의도역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어 광역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4차 산업 핵심 기업 유치 등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추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혜영/기자

이천시, 민원소통기동TF팀, 시민중심·현장중심 행정 박차

이천시가 지난 7월 민선8기 시정 방침인 시민중심·현장중심 행정의 행정을 위해 신설한 민원소통기동TF팀(이하 TF팀)이 민원접수 501건, 종결 438건으로 약 87%의 해결률을 보였다. (2022. 07. 18. ~ 12. 16. 기준)

이천시에 따르면 TF팀에 접수된 민원은 행정 175건, 교통 89건, 환경 60건, 생활 59건, 도로 58건 등이다. 더불어 장기적인 법적 절차 및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어 단기적인 해결이 어려운 장기검토 민원(TF팀 자체 분류) 16건 중 6건을 해결하는 등 장기검토 민원이 장기미집행 민원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TF팀 관계자는 "TF팀의 신설 목적인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TF팀에서는 민원현장 확인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23년부터는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확대하여 고충민원을 문자로 접수받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TF팀은 2023년 1월부터 365일·24시간 고충·건의·불편민원을 문자로 바로 접수받아 민원인에게 문자·유선 등으로 안내하는 등 민원소통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윤/기자



이천시, 탄소중립 미래도시 조성에 집중

이천광역시시는 12월 28일, 유정복 시장 주재로 환경분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에 대응하고 내년도 환경정책의 실천가능성과 민선 8기 공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시는 환경분야의 정책목표로 "세계를 선도하는 탄소중립 미래도시 조성"으로 삼고 5대전략과 주요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에서 광역지자체 1위를 차지하고, 초미세먼지 농도(PM-2.5)와 5대 하천의 수질(연평균 BOD)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2023년에는 ▲탄소중립 대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대기개선 총력 대응으로 맑고 청정한 공기질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도시 조성, ▲효율적인 하수관리로 체감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5대 핵심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6일 선포된 204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천형 2045 탄소중립 로드맵(4개 정책, 15개 과제)"을 중점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시민들을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센터를 운영하여 건강모니터링, 안심진료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주변국의 황사나 미세먼지의 영향권에 있고 화력발전

등 대형 오염원이 산재한 불리한 여건임에도 사물인터넷을 활용(총 294개 신규설치: 110개/23, 92개/24, 92개/25)하여 공사장 미세먼지를 실시간 감시하고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확대하는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방명품화천으로 선정된 승기천과 굴포천을 비롯한 인천 5대 하천은 자연생태 중심의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백야도·지도·울도 등 해수담수화시설 신규 설치 등으로 섬 지역 주민의 식수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내년도에 기본설계 시행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유정복 이천시장은 "현재 세대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의 발전도 책임질 필요가 있는 만큼 탄소중립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 목표 삼은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국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 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이천시는 환경분야의 정책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개편안에는 자원순환에너지분부를 환경국에 통합하고 시민의 환경안전을 총괄하기 위하여 생활환경과를 환경안전과로 개편하는 등 환경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중남/기자

화성시, 2023년 국비요구사업 예산7,986억 원 확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등 5개 사업에 356억 증액

화성시의 2023년 국비요구사업 예산이 7,986억6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화성시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 가운데 화성시 국비요구사업 예산이 지난해 6,282억400만원보다 27.1% 증가한 7,986억600만원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의 2023년 화성시 국비요구사업 예산은 총 47개 사업에 7,631억2,600만원이었으나 화성시 5대 중점사업에 356억4,500만원이 증액되며 7,986억6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안 보다 예산이 증액된 화성시 5대 중점사업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사업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 사업 ▲인천발 KTX 직결사업 ▲화성우정-향남국지도건설사업 ▲공공폐수처리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3,099억1,600만원으로 증액됐다.

예산별로 보면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당초 정부 예산안이었던 1,002억5,000만원에서 200억2,500만원 늘어난 1,202억

7,5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1,103억2,100만원에서 85억원 늘어난 1,188억2,100만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632억원에서 63억2,000만원 늘어난 695억2,000만원, 화성우정-향남국지도 건설사업은 5억원에서 5억원 증액된 10억원, 공공폐수처리지원사업은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3억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이외에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2301억원, GTX-A노선(삼성-동탄) 신설 1663억원, 갈천-기수 도로개설 256억원 등 철도 및 도로건설 예산이 감액 없이 원안 통과됐다.

화성시는 이번 국비요구사업이 감액 없이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균형발전 특례시 건설을 위한 교통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증액 예산의 대부분이 철도와 도로건설 등 교통을 위한 사업으로 화성시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망 완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

는 것은 물론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

정 시장은 "작년에 비해 큰 규모의 국비확보를 달성한 것이 고무적"이라

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계획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광주시, 2023년 공공갈등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경기도 갈등 건설팅 실시

광주시는 28일 경기도 민관협치과 소속 전문 갈등조정관과 함께하는 '2023년 광주시 공공갈등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건설팅'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2018년 민관협치과 조직을 신설하고 기업체, 행정기관에서 갈등 분야 업무를 담당하던 전문가들을 갈등조정관으로 임용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도내 시·군 중 최초로 시·군 대상 갈등관리 건설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건설팅에서는 광주시역 담당 갈등조정관(이성재)이 직접 참여해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사례 전반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으며 각종 인허가, 교통, 도로 등 개발행위와 소음, 먼지 등 생활 불편에 대한 다수인 민원 사례를 통해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관리와 사전 예방 등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건설팅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갈등 건설팅을 통해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다"며 "건설팅을 통해 민선 8기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생길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관리해 시민 불편을 없애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지사 2023년 신년사

존경하는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계묘년(癸卯年) 새해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지속되고 있고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더욱 힘을 발휘하는 지혜와 강인한 뚝박질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토끼처럼, 지금의 난관도 모두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민선8기 경북도정은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역사적 소명을 안고 도민 여러분의 굳건한 지지 속에 출범하였습니다.

역대 최초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TF를 만들었고,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도 함께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부의장으로서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도청 조직에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여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물론이고 인구, 교육, 그리고 외국인 정책까지 포함한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표본을 만들 진용까지 갖추었습니다.

표본을 만들 진용까지 갖추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방시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지속된 수도권 집중으로 청년들이 경쟁의 소용돌이로 내몰리고, 국민들이 행복하거나 희망을 품기도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일하고 배울 기회가 넘쳐나서 다시 지방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가치와 삶의 양식이 존중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가진 경제발전, 민주화, 새마을운동, 한류 등 성공의 경험과 고유의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보편적인 가치로 만들어 갈 때 비로소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경북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는 땅이다."라는 강한 믿음으로 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경북도정은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더 큰 성공으로 이어가기 위해 혁명적인 지방시대를 열

겠습니다.

청년들이 어디에 살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공정과 행복이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견인해온 경북도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동해안의 기적, 낙동강의 기적'을 이끌어 지방 성공시대,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안동문화관광단지, 지역 대표 관광지로 도약 준비

전망대 경관조명 설치, 내부 리모델링으로 방문객 맞을 준비

안동시는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주요객시설인 ▶전망대 ▶유교랜드 ▶주도피움을 정비하고 다채로운 콘텐츠와 볼거리를 확충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켜 지역민이 머물고, 관광객이 찾는 지역 핵심 관광지로의 도약 준비를 마쳤다.

안동문화관광단지는 안동의 핵심관광지인 월영교, 낙강물길공원, 안동댐과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며 숙박시설과 레스토랑, 카페, 가족형 체험시설을 완비한 곳으로, 본 사업들로 시너지를 내며 관광명소로서 새로운 부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우선, 최근 몇 년간 미운영됐던 전망대를 전면 리모델링 추진했으며, 특히 외부 경관조명에 형형색색의 빛을 더해 야간 볼거리와 밝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로 방문객들에게 미적 즐거움과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지상 3층은 내부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카페로 임대해 내년 초부터 다시 정상 운영될 예정이며, 지상 1층 야외 목재데크도 새롭게 정비하여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콘텐츠 노후화로 리뉴얼이 시급했던 유교랜드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 공모 선정으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첨단기술 기반의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 메타버스유교박물관으로 변신을 도모하여 메타버스 연동의 실감 콘텐츠로 리뉴얼이 추진된다.

올해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내년 9월까지 새로운 콘텐츠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10월 재개장 할 예정으로 안동문화관광당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식물원에서 가족친화

체험형 동·식물원으로 새단장하여 운영 중인 주도피움은 개장 후 1년간 방문객이 과거 온프레피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여 지역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찾는 안동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단지 내 유희부지를 활용한 초하류 군락지 조성, 안동호반달빛야행, 경북 달빛 트롯 콘서트, 버스킹공연 등과 같은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했다.

이처럼 2022년은 단지 내 주요객시설 리뉴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인 뜻깊은 한 해로, 향후 안동시가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를 통해 지역관광산업을 견인하며 힐링과 체험을 겸비한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근수/기자



윤경희 청송군수 「송년사」

「군민의 열정에 발맞춘 변화에 다양한 성과 거둔 한 해」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향우 여러분! 동료 공직자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과 함께 평온한 마무리를 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2년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의 끝에 서면 씨알이 작고 못나 사과는 낫두고 굵고 탐스러운 사과를 잘라냈을 때처럼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했기에 우리가 이룬 결과를 담담하게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명히 과거보다 나아진 청송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한 변화를 꿈꾸며 2022년을 맞았습니다. 활력과 포용, 기획과 참여, 안전과 공감이라는 전략 과제를 세우고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 청송'을 위해 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로 손에 잡히지 않았던 구상은 구체화 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사업은 현실화 되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지난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하나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군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를 돌이켜 보며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이자 책임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생활 속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로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지역 안전과 재난 관리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인재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교량 안전을 점검하고 보수하였으며, 재해 위험이 높은 곳을 사전에 정비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스마트 마을 방송 도입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송소방서 개청으로 화재, 구조, 구급은 물론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송군 이미지와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도 성과를 내었습니다. 청송군민의 높은 민주주의 의식은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으로 돌아 왔습니다. 군민들께서 공약 실천 방향을 결정하고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주권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받은 '산소카페 청송군' 도시 브랜드는 청송 밖 사람에게 청송의 맑고 청정한 자연과 여유롭고 품격 높은 청송 사람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청송사과의 명성과 품질을 이어가고자 황금진 브랜드를 활성화하고 유통기반 강화를 위한 산지유통 시설 지원,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10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과가 된 청송사과는



우리나라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사과 수출 300톤 쿼터 승인과 사과주스 5년간 무제한 수출 승인을 얻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대성공을 거둔 청송사과축제는 변화하는 청송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과홍보를 위한 지역 행사에 불과했기에 준비하는 사람도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도 만족하지 않았던 사과축제는 비대면 온라인 축제와 축제 현장에서 40만 명 이상의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해 즐기는 축제다운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체험 부스와 끊임없이 이어진 무대 공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력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축제 참여는 청송사과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이유를 보여 주었습니다. 축제를 함께 즐겨 주신 군민 여러분과 향우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풍족하고 익숙한 것의 가치는 잊기 쉽습니다. 우리의 농업이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는 농업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책은 농업과 농업인을 존중하는 정책 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의 토대는 농업입니다.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기본 소득 보장과 경영안정을 위해 농민수당과 농업인 안전 보험료,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농업의 가치도 높였습니다.

군민 생활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청송을 중앙로 전진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거미줄처럼 얽혀 반세기가 넘도록 주민의 시야를 답답하게 가렸던 전선과 전주를 없애고 도로를 넓혀 깨끗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중앙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농촌활력과를 신설하여 농촌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바꾸어 나갈 조직을 갖추었으며,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마을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촌 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농촌 생활환경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청송의 밤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청송의 자연환경과 정체성에 어울리는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어둡고 단조로웠던 청송의 밤 풍경을 따뜻한 온기와 활력을 불어넣었고, 생활권 주변 유희토지에 생활림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만족도와 청정 청송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지역경제도 전에 없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청송사랑화페는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부딪힌 지역경제를 지켜낸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청송사랑화페 시행 이후 지역 차계의 외부 유출은 줄어들었고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45% 증가하였으며 소비진작 효과도 168% 증가 하였습니다. 지역 내에서 거래, 생산, 소비가 확대되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 청송사랑화페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

하고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재난지원금, 어르신 행복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송군이 추진한 일자리 사업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청송의 새로운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청송정원은 사업 시작 단계에서 주민들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로 대한민국 공정관광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구역별로 색깔이 다른 백일홍을 심어 경관은 더 다채로워졌고, 벤치 그늘막, 사과터널 등 각종 조형물과 포토존을 설치하여 볼거리와 편의 시설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주변 동식물의 성장과 방해하지 않는 안심 가로등을 설치하여 군민의 안전과 함께 자연 환경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유교문화 전시체험관 사업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청송백자 전시 판매장과 옛편지 전시관, 심수관 도예 전시관을 재구성하여 관람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시관 본연의 목적에 더하여 관광객과 지역민의 워크숍, 학술대회 등 다양한 용도로 전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물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출향인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며 꿈꾸었던 청송의 오늘은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믿음 공직자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분되지 않고 연속하는 시간을 가는 해와 오는 해로 나누고 마지막 날과 시작하는 날에 어제와 다른 의미를 두려는 마음은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시간과 해 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하나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을 시작하는 해가 되도록 합시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삶의 만족도와 청정 청송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지역경제도 전에 없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청송사랑화페는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부딪힌 지역경제를 지켜낸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청송사랑화페 시행 이후 지역 차계의 외부 유출은 줄어들었고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45% 증가하였으며 소비진작 효과도 168% 증가 하였습니다. 지역 내에서 거래, 생산, 소비가 확대되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 청송사랑화페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

하고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재난지원금, 어르신 행복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송군이 추진한 일자리 사업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청송의 새로운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청송정원은 사업 시작 단계에서 주민들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로 대한민국 공정관광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구역별로 색깔이 다른 백일홍을 심어 경관은 더 다채로워졌고, 벤치 그늘막, 사과터널 등 각종 조형물과 포토존을 설치하여 볼거리와 편의 시설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주변 동식물의 성장과 방해하지 않는 안심 가로등을 설치하여 군민의 안전과 함께 자연 환경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유교문화 전시체험관 사업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청송백자 전시 판매장과 옛편지 전시관, 심수관 도예 전시관을 재구성하여 관람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시관 본연의 목적에 더하여 관광객과 지역민의 워크숍, 학술대회 등 다양한 용도로 전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물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출향인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며 꿈꾸었던 청송의 오늘은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믿음 공직자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분되지 않고 연속하는 시간을 가는 해와 오는 해로 나누고 마지막 날과 시작하는 날에 어제와 다른 의미를 두려는 마음은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시간과 해 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하나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을 시작하는 해가 되도록 합시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마지막 날
청송군수 윤경희

영양군수 신년사



다음의 시간이었습니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시기에 떨어져 함께 걷는 법을 배웠으며, 공공의 역할과 책무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는 일에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의 이행을 재촉하는 변화에 맞춰 더 높이, 더 멀리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는 이제 우리의 삶과 함께 가는 일상이며, 디지털 전환, 비대면, 언택트, 메타버스는 새로운 일상의 표

기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행복 프로세스를 영양이라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모두가 함께 정착시켜야 합니다. 행복은 구호가 아닌 구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군민 모두가 체감 해야 합니다. 행복의 영역을 관념에서 일상으로 끌어오는 일, 이것이 올해 영양군에 주어진 임무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나침반으로 삼아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의 희망을 미래에 담겠습니다!!

영양 자작나무숲 힐링허브 조성사업과 영양 밤하늘 청정에코촌 조성, 멸종위기 종복원센터 교육관 건립까지 더해지면 전국 최고의 '생태 브랜드' 구축으로 생태관광의 메카로 거듭나게 됩니다.

끊임없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 영양군 교정시설 및 국유림관리소, 영양 양수

발전소 유지, 공공관사 건립을 반드시 추진하여 지역 가치의 규모를 키워나가겠습니다.

인구 절벽을 넘어 소멸단계로 넘어가는 국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응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한 마스터 플랜을 추진하겠으며, 영양 정주형 작은농원과 체류형 전원마을 조성은 지역 정착의 첨병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입니다.

결혼장려금 5백만원과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인구반등의 계기와 함께 지속 가능한 인구 경쟁력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우리의 의무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배려입니다. 바다를 주거단지 기반조성과 동부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내면이 견고한 지역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둘째, 농업과 농촌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겠습니다!!

홍고추 최고가격 보장제 확대와 노지배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추가하여 농가의 소득과 미래를 함께 키워나가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영양분소를 사무소로 승격시켜 안정적인 농업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영양 남부권 농촌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과 영양빛깔찬일자리지원센터 증축, 그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사업 확대를 통해 농가의 어깨위에 농민 일손부족의 짐을 덜어내겠습니다.

업체류 특구 지정 및 전문단지 조성사업과 업체류 간이집하장 설치, 농산물유통시설(저온저장고) 건립까지 관련 산업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다지겠으며, 발전작 환경 개선사업과 화매지구 농촌 용수 체계개선사업 추진으로 체계적인 농정의 기본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영양다운 매력과 품격, 활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영양산나물축제,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 능이버섯 축제를 비롯한 읍면의 소규모 마을 축제는 1회성이 아닌, 세계적 다양하고 품격있는 콘텐츠 발굴로 지역상권 활력과 총총하게 연계시키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선바위관광지 조성사업과 선바위 효공림 사계원 조성으로 입암구역의 정체성과 이야기가 담긴 특화된 공간을 마련하겠으며, 영양원뽕음명품화사업 추진과 전승기반 마련으로 소중한 지역자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겠습니다.

청기, 석보 민면체육관 건립으로 지역체육인프라의 기반이 확대되며, 보조축구장을 증축 및 개보수하고 배드민턴장을 건립함으로써, 생활 곳곳에 군민들의 건강한 활력이 더해집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자족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보수비를 지원하여 골목상권 곳곳에 온기와 함께 자립에 힘을 보태겠으며,

전지훈련 유치는 몸집을 키우면서도 실질적인 지역경제의 한 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31호선 선형개량과 마령~산해 위험도로 개선사업, 31번국도 영양진입구간(감천1리~현2리) 터널화, 917번 지방도(오기1리~죽파리) 확포장 개설, 918번 지방도(도곡리~당리) 선형개량 추진은 영양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려줄 것입니다. 동부천 도심구간 정비사업과 녹색힐링 광장 및 반변천 수방돌래길 조성은 공간 혁신을 통해 사람과 자연을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안전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군민안전보험 확대, 영양소방서 건립은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가곡,신구,원리) 정비사업 추진과 산불대응센터 신축으로 안전한 일상을 보장합니다.

다섯째,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 마음까지 어루만지겠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강타합니다. 영양군립 공원묘원을 조성하여 인생 마지막의 행복한 동행을 이어 나가겠으며, 여성가족 센터를 건립하여 여성의 참여 확대와 능력 향상 기회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 사무공간도 확충하여 영양에 사는 행복과 긍지를 더하겠습니다. 코로나시대, 건강은 더 소중한 자산이자 경쟁력입니다. 50세 이상 군민건강검진비 지원, 수중생활센터 건립 65세 이상 노인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듬겠습니다. 반값등록금 확대와 대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 체육복비 지원과 중학생 어학연수를 2배 확대, 그리고 영양

공공도서관을 완공하여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 투자가 한결 촘촘해지며, 영양 초 지하 주차장 건립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행정의 틀에서 효율성만을 추구하면 모든 정책들은 현재의 조건에 맞도록 최적화하고,

군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게 됩니다. 복잡함과 모호함을 동시에 수용해야 하는 시대, 그럴수록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군민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군민들의 요구에 맞춰 좀 더 깊이, 좀 더 온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잘 알고 있다고 판단했던 과거의 감이나 느낌이 아닌, 그간의 데이터와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익숙함과 당연함은 퇴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행정속도에 과거만 답습하는 행정은 군민들의 만족을 결코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수많은 다짐을 속으로 품어야만 했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어느 때보다 높은 기대감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송년과 신년의 차이는 잘나에 불과하지만, 많은 분들의 희망이라는 단어로 그 의미를 부여 합니다. 아쉬움과 기대, 끝과 시작이 공존하는 지금, 일상의 행복과 건강이 빈틈없이 채워지는 군민 여러분의 희망찬 한 해를 기원합니다.

지난 3년, 우리는 코로나19 속에 소중한 일상을 잃고,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극복은 보다 높은 차원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불가능은 가능으로, 우리는 기대도 영양의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 왔으며, 이런 변화의 힘은 오직 군민들의 손길이었습니 다. 첫 마음, 첫 행동, 첫 출발의 시작은 변함없이 중요했습니다.

높은 빌딩도 벽돌 한 자에서 시작되고, 깊은 지식도 글자 한 자에서 출발합니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다짐'과 '노력'들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으로 이어졌고, 향후 4년, 미래 영양의 초석을 놓는 마음으로 크고 작은 일을 하나하나 챙겨 왔습니다. 상실의 시대에서 일상의 시대로 회복하고, 더 나아가 희망의 시대를 되찾는 데 군의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와 함께 한 지난날들은 큰 깨

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들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시도'가 축적되면 '경험'이 되고, '경험'이 축적되면 '일상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과 질문을 던져주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관계의 회복과 완전한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생태와 농업의 가치를 선택한 민선8기의 철학이 지역의 힘(力)을 높이고, 군민의 힘(力)을 키우며, 영양의 강한 힘(力)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거대한 변화에 맞서 그 어떤 위기에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표준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준비하고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위기 앞에서 치밀한 분석과 철저한 준비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일상생활과 행정의 급속한 변화에 군민들의 시간과 공간을 함께해야 합니다. 군민들께서는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역동성이 넘치는 지금,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목표는 군민입니다.

변화된 군민의 일상 구석구석에 영양의 행정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군정 화두는 '더 가까이, 영양 행복시대'입니다.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일상 어디에서나 민선7

년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다짐'과 '노력'들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으로 이어졌고, 향후 4년, 미래 영양의 초석을 놓는 마음으로 크고 작은 일을 하나하나 챙겨 왔습니다. 상실의 시대에서 일상의 시대로 회복하고, 더 나아가 희망의 시대를 되찾는 데 군의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와 함께 한 지난날들은 큰 깨

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들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시도'가 축적되면 '경험'이 되고, '경험'이 축적되면 '일상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과 질문을 던져주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관계의 회복과 완전한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생태와 농업의 가치를 선택한 민선8기의 철학이 지역의 힘(力)을 높이고, 군민의 힘(力)을 키우며, 영양의 강한 힘(力)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거대한 변화에 맞서 그 어떤 위기에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표준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준비하고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위기 앞에서 치밀한 분석과 철저한 준비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일상생활과 행정의 급속한 변화에 군민들의 시간과 공간을 함께해야 합니다. 군민들께서는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역동성이 넘치는 지금,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목표는 군민입니다.

변화된 군민의 일상 구석구석에 영양의 행정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군정 화두는 '더 가까이, 영양 행복시대'입니다.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일상 어디에서나 민선7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민선8기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군민들께서 자리할 것이며, 모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겠습니다. 무엇보다 성장원칙을 마련하겠지만, 성장곡선을 쫓지는 않겠습니다.

긴 호흡을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 영양에 더 큰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함께 지역소멸에 대한 위험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내딛는 첫 발걸음이 소멸이 될 것인지,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인지를 결정 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표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영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1% 특별한 영양', '디스카운트 영양'이 아니라 '프리미엄 영양'이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올해 신년화두는 "동심만리(同心萬里)"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희망찬 영양을 만들어가기 위한 여정에 군민 모두가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에 희망이 꽃피고,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2일
영양군수 오도창

경북도의회의장新年辭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희망찬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나해에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상북도 민선 8기가 시작되었고,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개원 하였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 하였고 농업과 산업, 문화와 복지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대전환을 통해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에는 경상북도의 역동적인 도약을 위해 서로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대한민국시도의회장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여 도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

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상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사회 전반에서 준비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치밀한 계획과 세심한 준비로 하루빨리 침체된 지역경제와 민생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경상북도의회는 도민들께서 짊어진 무거운 짐을 덜어 드리기 위해 도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세심히 보살피고 도민의 삶 전반에 대해 힘이 되어주



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더 나은 경북'을 위한 열린 의회란 슬로건으로 새롭게 출발한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더 굳은 각오와 겸허한 마음으로 도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되찾고, 경제가 회복되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1. 1.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

박준로 도청 도로철도건설과장, 영양부군수 영입돼

영양군이 2023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오비의 날개를 힘차게 펼칠 기운이 조심스럽게 감지되고 있다.

왜냐하면, 잘알다시피 한 지자체가 발전하려면 지자체가 일을 추진할수 있는 예산도 소중한 자산이지만 이를 적재적소에 요긴하게 집행할 줄 아는 인적자원의 역할 또한 이에 못지않게 매우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오늘 취재진은 이처럼, 매우 소중한 최적 인적자원이 영양군으로 발령받아 오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곳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이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2023년 새해 1일자로 영양군의 소중한 인적자산이 되는 분은 다음아닌 도청에 근무하다 이번에 전격적으로 영양부군수로 보직되는 박준로 부군수이다.

그는 1965년(만 59세) 경북 의성출신으로 영남고, 대구대, 경북대 석사, 안동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구열이 뛰어난 분으로 지난 1989년에 상주시에 공채돼, 시설과장, 청도군 안전건설과장, 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 경북 농축산유통국 농촌개발과장 등을 역임 후, 지난 1월 건설도시국 도로철도과장으로 근무하다 새해 1월 1일자로 영양군 부군수로 발령됐다.

그는 경북의 각종 도로망과 철도 등 이동로를 총괄 기획하고 이를 시행하



는 분으로 그가 줄을 그으면 곧 그곳에 터널이 풀리고, 도로가 개설되며, 철도가 건설된다는 '사탕팔달의 마술사'와 같은 존재로 알려지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에 따르면 "박 부군수를 영입하기 위해 이철우 도지사가 수차례에 걸쳐 특별 요청을 드린 결과, 전격적으로 영양군 부군수로 영입하게 돼, 도지사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면서 "이제 영양군은 열악한 도로망을 사탕팔달로 뽕뽕하게 되는 큰 행운의 기회를 잡게 됐

다."고 밝혔다.

과연, 독심의 소유자 오군수와 그리는대로 만들어 내는 마술사 박 부군수! 이들 두 분의 찰떡 궁합이 그림을 그려낸다면, 이곳 영양군은 보다 새롭게 변화된 영양군을 만들어 낼수 있으리라 기대해 보며 향후, 오도창 영양군수가 감독하고 박준로 부군수가 연출하는 희망찬 영양군의 미래가 보다 활짝 만개하기를 기원드려 본다.

윤근수/기자

주낙영 경주시장,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 위해 전력투구



- 원전·미래 자동차 산업 통한 차세대 과학혁신도시로 경제지도 대변화
- 미래 원전산업 블루오션 'SMR 국가산단' 유지 사활
-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로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경주, 10년 앞당길 마중물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2018. 7월 경주시에 입성한 후, 오로지 시민과 소통하면서 중단 없는 경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을 최우선으로 경제시장을 표방하며,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재선되어 소통하고 발로 뛰는 리더십으로 2천년 역사도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더 큰 경주

울리면서 청소년정책 우수자자체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 등 54건의 수상으로 경주시의 자긍심을 한층 더 높인 한해였다.

이에 본지 취재진은 주 낙영시장의 탁월한 리더십과 뛰어난 혜안으로 괄목상대할 만한 크나큰 성과를 거둔 경주시의 지난 한 해 성과를 세부적으로 들여다 봤다.

▲ 경주시 2조원 예산 시대를 활짝 열었다.

민선7기 1조 1480억 대비 약 5년 만에 83%(8,520억)가 증가했다. 정부 공모사업 선정, 투자유치 확대, 지역 역점사업 추진 등 각 분야에서 동분서주한 성과이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천년고도 경주의 자존심이자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1조 150억)의 안정적 추진과 SMR 국가산단 유치(3,046억) 및 양성자가속기 2GeV 확장(1.4조 원),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본격 추진(6,540억), 중수로 원전해체기술원 건립(723억), KTX 신경주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5,407억), 보문단지 국제회의 복합지구 조성(40억), 경주~포항~영천 노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3,322억), 경주~영천~경산 자동차 부품기업 대전환 슈퍼 클러스터 조성(5,880억), 신형산강 프로젝트(4,942억), 신농업혁신타운(610억), 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377억) 등 문화관광 도시 조성과 자동차, 원전산업을 연계한 경주의 경제산업 지도의 대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 시민과 소통하는 지역 숙원 해결사 시장으로 시민들로부터 각광받다.

30년 묵은 성건·구정동 고도면 15m에서 36m로 완화했고, 경주시민의 허파인 황성공원 사유지 3만여 평을 매입(1,987억) 하여 황성공원 원형보존 계기를 마련하여 현재 폐철교 구간과 연계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간 방치된 구. 경마장 부지 278천평을 120억 들어 매입 또는 무상양여 받아 보문단지 연계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 하고 있다.

또한 서천 강변로(27년, 470억),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17년, 283억), 감포 중앙도시 계획도

초광역 전철망 구축(122.6

km, 2,765억), 외동~농소 국도 7호선 확장(5.9km, 1,960억) 등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으로 안정적인 교통체증 해소 및 경주가 동해안 중심메카로 발돋움 하고 있다.

▲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이자 경제 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입증하다.

자동차 연관기업이 1,300여개로 도내 60%가 경주에 있다.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 기반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차량용 첨단 소재 성형가공센터 건립(290억), 탄소 소재부품 라사이클링 기반 구축(193억),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리 허브센터(423억), 미래형 첨단자동차 스마트캐빈 기술개발 실증(300억), 외동 지역 노후 산업단지 대개조(3,322억) 등 차세대 과학혁신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 세계 원전산업의 블루오션인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단'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다.

국가산단이 선정되면 원전 관련 우량강소기업 225개 입주 예상, 1천 여명의 석·박사 전문 인력 상주, 배후단지 조성, 고용창출 등 경주가 세계 원전수출시장을 선점한다.

▲ 경주에도 바다가 있다.

수려한 동해안선 43km(10리)을 따라 천연기념물 제536호 양남주상절리, 해안 산책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121억), 문무대왕 등

성역화 사업(220억), 해오름 국가바다 정원 조성(150억), 2025년 감포항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100억),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1,050억)을 비롯해 해수부 어촌뉴딜300 공모사업(413억, 5개항) 전국 최대 선정 등 천혜의 해양 관광자원을 토대로 해양 르네상스를 실현하고 있다.

▲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중·일 등 21개 회원국 정상 및 각료들이 참석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경주시가 유치하게 되면, 경제 유발효과 1조원 이상은 물론, 경북지역 경제에 9,720억의 생산유발효과와 4,654억의 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7,908명의 취업 창출 효과가 예상돼, 경제발전 10년을 앞당길 마중물이 되는 엄청난 결과물을 이끌어 낼 수 있기에 주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와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이 회의 유치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와 태풍 힌남노의 그 어려운 역경하에서도 퇴보하지 않고 오히려 역대 어느 해보다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와 황금대교 조기 완공 등, 지역 숙원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각종 정부공모사업을 계획대로 완수하면서 SMR 국가산단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반드시 유치하여 경주를 세계적인 MICE 산업도시로 위상을 드높이고 원전과 미래 자동차산업을 연계한 차세대 과학혁신도시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윤태용/기자



「더 나은 미래 100년 대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래 없는 코로나19와 태풍 힌남노 등을 전 시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 했으며, 전 직원들이 협심한 결과 신형산강 프로젝트 등 정부 공모사업 66건에 1조 3천 8백여 억 확보, 현대모비스 물류센터 등 12건, 5,332억 우량강소기업 투자유치로 1,216명 고용창출과 2018년 민선7기 5,193억 대비 약 5년 만에 4,910억(95%) 증가한 1조 103억 국·도비 확보 등



원전 차세대 에너지 요람!

"경주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역대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 경주가 최적지

2021. 7. 6.(화) 경상북도 경주시



초광역 경제산업 공동체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정기회

2022.10.25(화) | 경주 황룡원



최고의 성과를

로(27년, 354억), 황금대교(8년, 410억) 등 수십 년 묵은 지역 현안을 속 시원한 해결로 시민 소통, 민원 해결사 시장으로 소문이 파다하다. 그리고 북울산~KTX 신경주역~포항·동대구역 간 동남권 해오름

전북도,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종합대상'수상

주거복지 분야 '대한민국 1위' 수상 영예

전라북도는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해 열린 '제5회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주거복지 분야 발전에 공헌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수상내역 1위에 해당하는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賞'은 주거복지 분야의 모범을 선도하고 기여한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와 제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시상식에는 15개 기관(지자체 11, 공공기관 4), 12개 민간단체, 11명의 개인 등 총 38개가 수상했다. 전북도는 종합대상을 수상해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에서 전체 1위를 달성했다.

전북도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을 통한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전북도는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응하고 도민에게 질 좋은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거복지팀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주거공

급 실태 및 요구사항 조사 등이 반영된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정비도 마쳤다.

또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2천만 원 이내, 최대 6년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과 전북형 재해주택 원스톱 복구비 지원, 청년수당 지원 등 실효성이 높은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형 농촌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사업지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 추진 등 다양한 계층별 임대주택 공급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만족도 평가에서 90% 정도가 '매우 만족'으로 응답할 정도로 도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올해는 복권기금(국비) 19억 원을 확보해 사업대상과 지원금액도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2026년까지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으로 매년 10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등 민



간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인력증진 조례도 제정해 소외된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전북도는 광역 최초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관련 도비 예산도 확보했다. 이에 2023년부터 도내 4,000가구 이상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최대 10년간, 2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

다. 김관영 도지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거복지분야의 종합대상을 수상해 매우 기쁘고 보람된다"고 수상 소감을 밝히며, "전북도는 안주하지 않고 모두가 따뜻한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군민이 군수입니다', 완주군 '1일 군수제' 5개 분야 위촉 본격 시행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 내 (주)정석케미칼의 김용현 대표가 28일 경제·일자리 분야의 완주군 '1일 군수'로 위촉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용현 '1일 군수'는 오전 9시에 위촉패를 받은 후 이날 문서 결재를 시작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 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종합민원 부서를 방문해 민원인을 안내했다. 또 완주군의회를 방문해 서남읍 공의장과 간담을 한 후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와 삼례문화예술촌,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등 주요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현황 점검과 함께 추진 계획을 청취했다.

분(分)단위로 쪼갠 하루 일정은 오후 3시 40분까지 약 7시간에 부서 2곳과 현장 4곳을 방문하는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민선 8기 완주군의 첫 '1일 군수'인 김 대표는 "짧은 하루이지만 군정 전반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됐다"며 "군정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경험을 토대로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1일 군수' 활동을 시작으로 민선 8기 공약인 '완주군 1일 군수제' 운영이 본격화한다.

이 제도는 군민 누구나 1일 군수가 되어 군수 시점에서 각종 현안사업을 살피고 민원을 처리하는 등 군정 전반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달 8일부터 군 홈페이지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X-베너, 이장회의 등을 통해 '완주군 1일 군수제'를 홍보했다. 접수된 후보자 중 분야별 1일 군수를 선정하고, 선정된 1일 군수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1명씩 '1일 군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분야별 '1일 군수'로 선정된 사람은 경제·일자리 분야의 김용현 (주)정석케미칼 대표를 비롯한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전일환 한국예술인협회 완주지회장, 주민복지 분야의 김영기 (사)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장, 교육·여성·아동 분야의 천경옥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장, 환경·재난 분야의 임필환 완주군산림조합장 등 5명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사회 각계각층의 군민을 1일 군수로 위촉해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주민 우선·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내년에 분야별로 선정된 1일 군수를 분기별 1명씩 위촉하고 군수의 눈으로 군정을 살펴보는 '완주군 1일 군수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광수/기자

남원시,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우수지자체 선정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억원 확보

남원시가 2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회의 참여 및 기여도(15), △지방규제혁신TF 운영 실적(15) △중앙 규제 개선 노력(40)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30)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했다.

남원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6회 운영,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82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또한 자치법규 규제를 전수 조사해 규제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중소상공인 지원, 사회적약자 보호와 관련된 자치법규 23건을 자체 정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10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서 재인증을 달성하여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가 지역의 성장의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규제혁신 역량이 튼튼해질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 또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2022 제야 축제로 새해 '전주의 큰 꿈' 기원

시, 오는 31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제야 축제 3년 만에 시청 노송광장에서 재개

전주시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제야 축제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희망찬 2023년 새해를 맞이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31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 일대에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2023년 새해를 시민들과 함께 맞이하는 '2022 전주 제야 축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오후 7시부터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서는 시민들의 안녕과 민선8기 시정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기점놀이 거리퍼레이드, 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과 우범기 전주시장 신년사, 주요 내빈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제야 축제의 꽃인 타종행사의 경우 대형 LED 화면을 활용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가상현실 방식으로 꾸며지고, 희망찬 새해맞이를 축하하는 화려한 불꽃놀이도 이어진다.

또한 시는 제야 축제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 퓨전 국악 밴드 '차오름', '전

주 판소리 합창단', 인디밴드 '노아', 퓨전타악 퍼포먼스 '아퀴' 등 지역 예술단체들의 다양한 문화공연을 마련하고, 새해 소망 기원 소원지 쓰기와 포토존, 푸드트럭 등의 부대행사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이날 행사장 주변에서는 시민들의 추위를 달래줄 따뜻한 차와 떡 나눔 행사도 예정돼 있다.

시는 원활한 2022 전주 제야 축제 진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날 오후 1시부터 행사 종료 시까지 노송광장 일대 도로의 교통을 통제할 계획이다.

주차는 홈플러스 완산점과 전주고등학교, 한국전통문화전당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며, 주요 거점에는 교통통제 및 주차 안내를 위한 모범운전자도 배치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을 희망차게 맞이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시

민들이 따뜻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통과 공감, 화합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 천년 역사를 가진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승일/기자



2023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2023.1.14.(토) ~ 15.(일) 청송 얼음골 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경기장

2023 청송 전국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2023.1.7.(토) ~ 8.(일) 청송 얼음골 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경기장

주 최: 국제산악연맹, (사)대한산악연맹
주 관: 청송군, 경상북도산악연맹

구례 천은사 일주문 보물 지정

조선 후기 건립, 지역적 특성과 조선시대 일주문의 전형적 양식 반영

전라남도 구례군에 위치한 「천은사 일주문」이 28일 보물로 지정됐다. 일주문은 사찰이 시작되는 영역을 알리는 정문으로, 일반적으로 두 개의 기둥 위에 지붕을 얹은 독특한 형태의 문이다.

1723년(조선 경종 3)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진 「천은사 일주문」은 조선시대 일주문의 전형적인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문지방에 돌을 사용하는 등의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서화가 원고 이광사(1705~1777)의 글씨가 편액으로 걸려 있어 예술사적 의의도 지니고 있다.

문화재청은 올해 구례군을 비롯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찰 내 일주문의 보물 지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천은사 일주문」 등 4개 일주문(순천 선암사 일주문, 문경 봉암사 봉황문, 대구 동화사 봉황문)이 이번엔 보물로 지정됐다.

한편, 구례군은 올 한 해 「천은사 일주문」 보물 지정과 함께 「화암사 벽암국일도대선사비」, 「호남여성농악-포장결립-」의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여 모두 지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김순호 군수는 “앞으로도 관내 문화재들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새해 '세계로 준비하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 원년 선포

글로벌 도정·균형발전 중심지·행복공동체 3대 운영방향 제시

전라남도가 2023년 '세계로 준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원년으로 삼아 글로벌 도정, 균형발전의 중심지, 행복공동체 건설 등에 매진하겠다는 3대 도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 송년 기자회견단을 맞아 통과 및 2023년 도정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올 한 해 전남 대도약을 견인할 국고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실제 ▲내년 국고예산 역대 최대 8조 6천500억 원 확보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등 대도약을 이끌 핵심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분야별로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개교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에타 통과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176개사와 10조 원 투자유치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에타 통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 ▲남도장터 법인과 및 남도장터유에스(US) 오픈 등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농어민 소득 증대에 집중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해남 오시야노 리조트, 신안 자은 씨월드리조트 등 명품 숙박시설 확충 ▲세계갯벌자연유산 보존본부와 국립해양수산물관 유치 등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를 조성했다.

도민행복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타운 ▲희망디딤돌 통장 ▲청년문화복지카드 ▲전국 최초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면세유 인상차액의 50% 지원(2회) ▲재해보험료 자기부담분 10% 인하 ▲전국 최초 천연 여객선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확대(8호점) 등 도민 제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지방시대 분야에서는 ▲전남·광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영호남 상생 비전선포식 ▲경기도와 상생협약 ▲남부권 영호남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과 '여수박람회특별법' 국회 통과 ▲74년만에 정부차원의 여수사건 희생자 결정 등 도민 염원이 해결됐다.

김영록 지사는 이같은 민선7기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을 '세계와 경쟁하는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경제일류와 경쟁하는 글로벌 도정을 펼치고, 전남을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지로 만들며, 도민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 세계로 우뚝 서는 글로벌 전남 실현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 도약과 첨단산업 선도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30조 규모) ▲첨단반도체 특화단지 ▲우주발사체 특화산단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그린수소 에너지지점 ▲분산에너지 시스템 ▲글로벌 IT 기업이 모이는 RE100 전용산단을 조성해 글로벌 에너지산업 선도 등을 추진한다. 또 ▲한국에너지공단 초일류대 육성 ▲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차세대 그라운드 반도체 센터, 핵심핵심중용 초전도 도체 시험 설비를 구축해 세계적 과학 중심지 육성도 추진한다.

문화·예술·관광산업이 융복합된 글로벌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3조 원 이상 확대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전국체전,국제수목비엔날레,전남 방문의 해 성공개최로 전남 관광객 1억 명, 해외 관광객 300만 명 시대 개막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미래 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농업 융복합지구 ▲김산업 혁신클러스터 ▲친환경 수출 물류 플랫폼 구축 등 농어업 대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스마트 청년농업인 1만 명 육성 ▲남도음식진흥원 설립 ▲남도장터US 등 판매망 확대로 농식품 수출 10억 달러 등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전남 수도 건설을 위해 ▲전북·제주와의 초광역 해상풍력 산업벨트 ▲경남과의 우주산업벨트 ▲부산·경남과의 탄성소재 벨트 등 남해안을 미래신산업 중심축으로 육성한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농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유치 ▲전남사랑에(愛)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추진 ▲동부권 통합청사를 4개 실국으로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국가 대중매인 광역 SOC 확충을 위해 ▲전라선 고속철도 에타 면제와 조속한 경전선 완공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광주~고흥 고속도로 국가 계획 반영 ▲압해~화원, 화태~백야,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다도해 전사인웨이 해양관광도로 등을 차질 없이 추진기로 했다.

◇ 행복공동체 전남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을 만들기 위해 ▲호남 청년아카데미 운영 ▲청년문화센터 건립 ▲청년문화복지카

드 확대를 청년의 꿈과 희망 응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을 위한 여행상품 지원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홀로 사는 어르신 등에게 난방비 지원 등 행복시책 확대 ▲국립의과대학을 유치해 지역공공의료 사령탑으로 육성 등을 추진한다.

고금리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상품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과 이자 및 보증 수수료 지원 ▲예년에 준하는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급격한 유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힘든 농어업인을 위해 ▲도가 최초 시행한 농어업인 면세유 지원 기간 2개월 더 연장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분 50%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과 지원 규모 확대 등을 추진한다.

김영록 지사는 “대전환 시대, 세계로 우뚝 서는 위대한 전남은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며 “계묘년 새해는 세계로 준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드는 데 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나주시, 기초생활보장 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 복지사각지대 발굴 성과

전라남도 나주시가 시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던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나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기초생활보장 평가'에서 전국 2위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표창과 포상금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 평가는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수급자 발굴, 행복e음 변동알림 처리실적, 긴급복지지원, 예산집행 실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적인 운영 실적과 업무 협조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나주시는 비수급 빈곤 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 1348명',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보호결정 249명'을 발굴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원했다.

특히 사회보장급여 적정 지급 관리를 위한 정기·월별 확인 조사, 행복e음 변동알림 처리현황 정비 및 업무 교육 추진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신속·정확한 업무 추진을 위한 담당 직원 역량을 강화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현실적인 생계 위기 속에서도 정부 지원이 닿지 않는 빈곤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적기 수급 지원을 통해 살기좋은 행복 나주를 구현하겠다”라며 “사회보장급여 적정 지급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해남군 "경제에 강하다" 경제활성화 수상 4관왕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경제 관련 평가 싹쓸이 "경제가 최우선" 성과

해남군이 코로나 경제충격과 고물가 위기를 극복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각종 수상을 싹쓸이하며 '경제에 강한 해남'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군은 수년째 이어진 코로나와 경기침체에 대응해 경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과감하고 선제적인 경제 대응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른 경기 개선을 이뤄냈다.

해남군의 지역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경제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으며 각종 수상으로 이어졌다.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는 물가 위기로 민생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물가안정 추진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광역시도, 기초지자체를 망라해 전국에서 최우수 지자체 24개 기관을 선정했다.

해남군은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해 초부터 고물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을 선제적으로 동결했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실시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확대 및 지원, 물가 모니터링단 활용 등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군민 주도형 지방물가 안정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해왔다.

또한 해남군은 올해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서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수범사례와 물가안정 관리, 중소기업 지원·육성, 소상공인 지원·육성 등을 평가한다. 해남군은 2020년 대상에 이어 2021년 최우수상, 다시 2022년 대상을 탈환하며 도내 경제 활성화의 수범 지자체로서 위상을 새롭게 했다.

우선 지역 경제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이 크게 인정받았으며, 전남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 3종 패키지 사업이 눈에 띄었다. 더불어 양질의 해남형 일자리 창출 정책과 사회적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세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민이 환호하는 해남사랑상품권 정책은 전국에서도 으뜸사례로 평가 받았다.

해남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에서 작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는 국무총리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남도 내 유일하다.

2019년 4월 발행하기 시작한 해남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발행 4,720억 원, 판매 4,482억 원, 환전 4,396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 군단위 중 최고 규모로, 지역자금의 관리 유통 방지와 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물가 등으로 시름하는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는 효과 시책이 되고 있다.

등록 가맹점 수도 발행 초기 1,600개소에서 3,653개소까지 늘어났으며, 적극적인 국도비 유치 활동 결과, 4년간 253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할인 판매 등을 통해 군민들의 혜택을 더했다.

상품권 실사용자수는 2022년 12월 기준 47,770명에 이른다. 이는 구매 가능 인구 기준으로, 해남군민 10명 중 8명이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을 제

공하여 위기를 함께 버텨내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성과로 행정안전부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혜택 사각지대 해소 및 저신용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군은 해남형 특례보증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12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2,588개소에 맞춤형 지원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명현관 군수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내년에는 연초부터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민생경제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면서 “2023년은 지역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경제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광남/기자

행복한 결혼, 새로운 시작을 화순군이 응원해요

화순군이 전라남도와 함께 청년 신혼 부부에게 2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화순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청년 부부의 결혼축하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 부부,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축하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후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화순군에, 나머지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신청 자격을 갖춘 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일부터 6개월간만 자격이 유지된다.

신청은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여성(아내)이 하며, 위임장 첨부 시 남성(남편)도 할 수 있다. 필요 서류(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외에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화순군 결혼장려금'도 신청을 받는다.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 초혼 부부가 대상이다. 단,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이전부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부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일부터 10개월간만 자격이 유지된다. 매년 200만 원씩 최대 5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화순군 결혼장려금과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1회차는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으로, 2~5회차는 화순군 결혼장려금으로 지급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인 만큼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청년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등에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경호/기자

강원도,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 국비 120억 확보

실감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가 연계된 메타버스산업 생태계 조성

강원도가 강릉시와 함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 '23년도 신규 사업으로 기획·제한한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사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비 120억원을 확보(지방비 120억 포함, 총사업비 240억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제 메가이벤트 개최 지역*에 최첨단 메타버스 체험관을 구축하여, 참가자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기술을 체험하고 유통·소비가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를 지역 상징물(landmark)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곳에는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전시·체험 콘텐츠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기술의 원리와 활용사례, 메타버스 기술이 적용된 미래의 일상생활, 올림픽 등 체험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가 구축되며,

올해 12월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을 통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전까지 메타버스 전시·체험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또한, 메타버스 융복합 기술로 가상 세계와 현실세계를 엮어 만든 새로운 풍경의 메타랜드, 메타오션, 메타브리지 등 '강릉이 메타버스를 플렉스하다(Meta-Flex)'라는 메타버스 선두지역으로 정체성과 비전을 알리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의 공간 차별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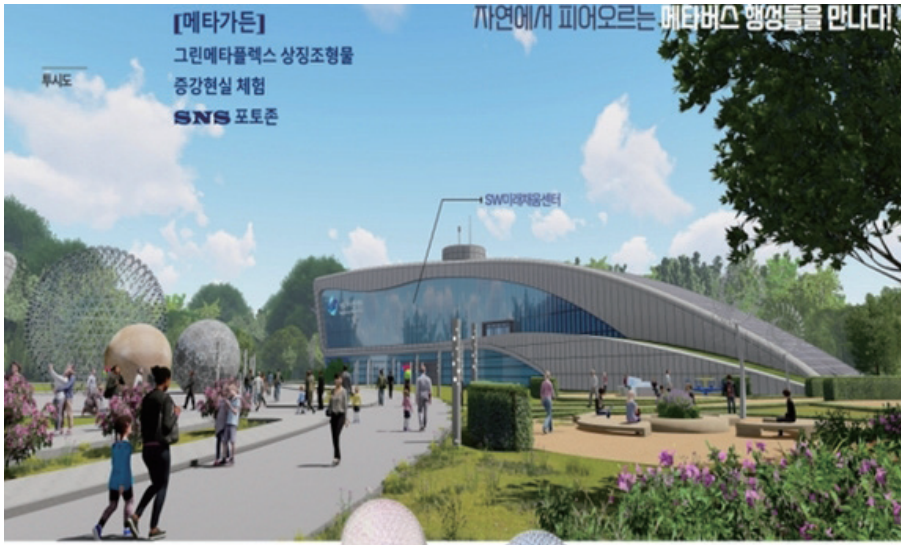
1층 : 메타랜드에 메타유니버스를 띄우자!

2층 : 메타오션에 가라앉은 메타시티를 깨우자!

3층 : 균형과 조화의 메타플렉스 다시 자연으로!

이를 통해 다양한 메타버스 실감콘텐츠의 흥미를 유발하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첨단 모험형 체험공간으로 지역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기업지원센터에는 기업 입주시설과 공동 실증공간 등을 구축하여 기업 성장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초·중·고생 대상 메타버스 코딩캠프, 지역 주민 메타버스 리빙랩 운영 등을 통해 메타버스 지역격차를 해소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새 정부와 강원도 공약사항인 메타버스 거점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메타버스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국제 메가이벤트와 연계하여 전시·

체험관 상설 운영 및 지역축제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관 운영 등 기능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동해항 국제항로 및 지역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재)북방물류산업진흥원은 동해항 국제항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국제물류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 동해항 중심의 물류산업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북방물류산업진흥원 회의실에서 국제물류기업인 (주)씨케이팬아시아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기존 동해항의 한·러·일 국제항로 활성화를 물론 신규항로 유치와 수출입 화물 다양화, 소량화물 적극적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와 연계한 물류 관련 기업 유치,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주)씨케이팬아시아는 인천항과 부산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콘솔화물(하나의 컨테이너에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혼재해서 싣는 방식) 분야에서 국내 정상급 업체로 평가받고 있으며, KOTRA가 주관하는 수출 바우처사업의 국제운송분야 수행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물류기업이다.

동사는 지난 1998년 창업 이래 카페리션을 이용한 물류서비스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업력을 다져왔으며, 현재 190여개국을 대상으로 한 물류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현대글로벌비스, TDK, 한국OGK 등 글로벌 기업의 물류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해 한러 직항 항공운행에 차질이 생

기고 대형 선사들의 기항 회피에 따라 동해-블라디보스토크 구간의 카페리 항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해 동해항을 통한 러시아 수출은 호조세를 지속, 11월까지 차량 4,764대, 중장비 1,146대, 컨테이너 500TEU 등의 실적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내 중고차 특수 덕분에 동해-목호항을 통한 자동차 수출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컨테이너 수출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화물 역시 거의 없다시피 해 장기적인 항로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평가다.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씨케이팬아시아의 다년간의 경험 및 물류망을 살린다면 동해항으로 콘솔화물을 적극적으로 유치, 컨테이너 물동량의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에서 한국 및 아시아로 들어오는 화물 유치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호영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원장은 "동해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류기업의 유치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동해항이 러시아와 일본뿐 아니라, 세계 각지와 연결되는 글로벌 포트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강릉시, 국비 역대 최대규모 3,967억 원 확보

국민안심해안 사업 등 9개 사업 국회 증액 및 신규 반영

강릉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 역대 최대규모인 3,967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2022년 당초 국비확보액 3,574억 원보다 393억 원(11%) 증가한 규모이다.

내년도 주요 사업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40억),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202억),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96억) 등 주민의 안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재해 예방,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들이다.

특히, 당초 정부 예산안과 비교해 이번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설립 연구용역(2억), 연안정비를 위한 국민안심해안 사업(4억) 등 9개 사업에 총 45억 원이 추가 증액 및 신규 반영됐다.

올해 강릉시는 국가시책과 시 핵심 전략을 연계한 국비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예산정책협의회 등의 개최하여 정부부처 동향 및 국비변경 상황을 상시 점검해왔다.

또한, 김홍규 시장은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강원도 내 인적 네트워크와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하는 등 국비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민선8기 주요 정책과제 이행 및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어느 때보다 국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평창군, 계묘년 새해 '평창형 행복일터' 힘찬 타종

평창군은 지난 21일 4급 2명, 5급 5명 등 일반직 공무원 52명을 승진의 결하고 국·과장급 포함 158명 규모의 2023년 1월 1일 자 상반기 정기인사를 26일 발표했다.

군은 매년 1월 중순에 이루어지던 정기인사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과장 인사와 직원인사를 함께 단행함으로써 인사개입을 원천 차단하여 신속히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 정기인사 시기를 앞당겼으며, 그동안 인사발령일 하루나 이를 전 인사발령 사항을 게시하여 업무인수인계의 어려움이 있다는 직원불만을 해소하고자 정기인사 발령사항을 1주일 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계묘년 새해 '평창형 행복일터'의 시작을 알리는 첫 정기인사로 다자녀 공무원, 본인적성을 고려한 전보희망 신규공무원,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등을 희망부서로 전보조치하고, 개인·부서·직렬상당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인사부서 중심의 하향식 인사 운영에서 벗어나 직원 소통을 통해 개인적성, 역량강화, 직원편의 등을 고려한 공감받는 인사 운영의 첫 시도도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최

우선으로 고려했다.

또한, 성과중심의 직원평가를 통해 묵묵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장이 해당 직원의 적성,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에 근무할 경우, 업무성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을 추천하는 부서장 추천제도를 처음 인사 운영에 반영했다. 아울러, 팀장급 장기 교육훈련 파견자는 교육 전 결원부서 내 업무지원 인력으로 배치하여 부서 내 결원을 최소화했으며, 그동안 직원들이 가장 불만족한 회전문 인사를 차단하기 위해 선호부서 간 전보를 제한하고, 지원부서 근무자를 사업부서로 순환전보 조치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실시한 두 번의 인사는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이었다면, 이번 정기인사는 평창군 처음으로 인사 혁신 방안을 도입하여 소통과 공감을 통한 직원 중심의 맞춤형 인사 운영의 첫 시작이다"라며, "공감받는 평창형 행복 일터를 통해 변화가 기대되는 평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문화와 남원
미래산업도시 남원
http://www.namwon.go.kr

눈꽃축제

겨울 · 눈꽃 그리고 동심으로의 여행

개 장 _ 2022. 12. 25.(일) ~ 2023. 02. 12.(일)
(임시개장 2022.12.25 ~ 12.31/ ※ 개장초기에는 날씨 사정으로 휴장이 될 수 있으니 사전 연락주세요 T.063-635-0301)

장 소 _ 남원 바래봉일원 (운봉읍 바래봉길 214)

주요행사 _ 눈썰매, 얼음썰매, 눈꽃동산, 눈꽃등반



음성군, 10대 베스트 성과 발표

GRDP 8년 연속 도내 2위, 무역수지 전년 대비 246% 증가

음성군이 도시까지 상승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2030 음성시 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군은 2022년을 결산하며 올 한 해 분야별로 지역경쟁력 입증과 지역발전의 이끈 베스트 성과를 발표했다.

이는 적극적인 주민들의 협조와 지원, 그리고 탄탄한 행정력을 앞세워 이룬 값진 성과로 풀이된다.

1. GRDP 8년 연속 도내 2위 / 전국 군 단위 2위

12월 총복도가 발표한 시·군 GRDP 추계에 따르면 음성군은 8조2천841억원으로 8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청주시 다음으로 충북경제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군 단위 GRDP에서 2위를 차지했다.

올해 11월 말 기준 무역수지는 794백만불로 전년도 무역수지 229백만불 대비 246% 증가해 도내 2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 충북경제를 이끄는 경제중심도시로의 임지를 굳혔다.

* '도내 2위' 충청북도 발표 ('22.12.) / '전국 군 단위 2위' 전국 GRDP 통계청 자료('22.8.)

2. 민선 7기 이후 투자유치액 9조6천억원 달성

민선 7기부터 지속적인 강세를 보였던 투자유치 부문에서 올해는 1조2천억원의 투자유치와 1622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으며, 민선 7기 이후 투자유치액이 9조6천억원으로 1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3. 고용률(15세~64세, 청년 15세~29세) 도내 상위권 링크 지속

올해 상반기 기준 ▲15~64세 고용률(OECD기준) 75.3%로 도내 2위 ▲15세~29세 청년고용률은 52.4%로 7년 연속 도내 1위 지위를 차지했다.

또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됐고, 올해 충북도 노인 일자리 창출 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으로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한편 투자유치 성과는, 고용을 창출하고 가계소득 안정과 더불어 소비와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파급효과가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4. '22년도 재정규모 9887억원, 1조원 시대!

지역개발 동력인 재정 규모가 매년 증가해 '22년도 최종 예산은 9887억원으로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18년 재정 규모 대비 49.7% 증가한 규모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다.

특히, 우량기업 유치 효과로 지난해 2천억원을 돌파한 지방세입은 올해 역대 최대인 2천6백억원에 달하며 군 단위 도내 1위, 전국 4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5. 시 승격 디딤돌! 공동주택사업 계획 승인 1만3057세대, 착공·분양 6901세대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과 함께 2030년 시 승격을 위한 인구 유입 핵심 전략으로 도시개발, 공동주택 건설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 5개소 중, 대소 삼정지구(1801세대)는 공사 막바지로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민간개발인 금양지구(1505세대), 맹동 본성지구(1653세대)는 올해 착공했다.

현재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진 공동주택은 총 21개 단지 1만3057세대로, 이 중 909세대가 올해 준공되고 9개 단지 6901세대는 건축공사가 한창이다.

6.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국립소방병원 착공,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

전국 유일의 국립소방병원이 12월 착공했고, 2025년 개원 시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국내 최고 의료시스템 도입과 우수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등 현재 서울대병원 개원준비단이 운영되고 있다.

군은 병원 건립과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첨단 소방산업 복합클러스터 구축 등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7. 농촌협약 등 농촌 생활 여건 개선사업 486억원 사업비 확보

대소면과 삼성면, 맹동면 등 농촌협약 사업비 366억원을 확보했고, 대소면 오산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선정돼 12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문화시설 및 녹지확충 등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 맹동혁신·금빛 체육센터 준공 등 생활 인프라 확충, 10개소 918억원 투자

이와 함께 생활밀착형 문화·체육 시설 확충에도 힘써 7레인 규격의 수영장을 품은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와 960석의 관람석을 갖춘 금빛체육센터를 준공했고, 실성평생학습관과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를 개관하고, 대소도서관을 재개관하는 등 고품격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했다.

9. 수소·이차전지 신성장산업 선점

군은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유치 ▲화물차용 특수수소충전소 유치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착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소·이차전지 신성장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차세대 먹거리를 선점했다.

10. '상상대로 음성' 도시브랜드 선포마지막으로, 군정 사상 최초 도시브랜드인 '상상대로 음성'을 선포해 군의 진취적인 도시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역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조병욱 군수는 "민선 7기부터 도시의 전반적인 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설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2023년도에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음성도시비전100을 기반으로 올해 이상의 성과를 거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충남도, '올해의 농어촌발전상 시상'...농어업 가치 공감대 확산

'제30회 충남도 농어촌발전상 시상식 개최'...3개 부문 12명 수상 영예

충남도가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시·군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농어촌발전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어촌발전상은 도내 농어업 분야 최고 영예의 상으로, 매년 현장에서 꽃피듯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밤 흘려온 일꾼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언론인,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작목·시책·지원기관 분야에서 농어촌발전 대상 강도석(48·부여군) 씨와 각 부문별 1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 씨는 부여에서는 최초로 3300㎡의 스마트팜에 참채소를 선도적으로 도입한데 이어 업체류 생산에 적합한 스마트팜을 직접 설계, 시공 및 실증 재배를 통해 업체류 규격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대학생, 후계농 등 농업 경영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생산현장을 체험하게 하고, 스마트기술과 생산·유통 교육을 통해 미래 농업 인력 양성에 힘써 온 부분도 높게 평

가됐다. 이외에도 원예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셀러드 특화작목을 도입해 업체류공산출하회를 구성·규모화 시켰고, 안정적인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인터넷 쇼핑 등 직거래 기반을 다져 다양한 판로

확보했다. 작목 부문에서는 △식량작물 서천군 박병구(쌀) △원예특작 예산군 신만영(국화), 태안군 홍민정(참채소) △임업 부여군 김대중(밤) △수산 논산시 강정현(수산자원조성) 씨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시책 부문은 △친환경농업 태안군 김정근(유기농산물), 부여군 이관호(무농약 쌀) △로컬푸드 동천안농협 조덕현 △축산 구항농협 황규진씨가 수상했다.

지원기관은 논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 선정됐다.

시상식장에는 수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20여 종의 농산물과 수산물이 전시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김태흠 지사는 "묵묵히 농어촌 현장을 지키며, 도전과 혁신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시는 자랑스러운 농어업



인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오늘 시상식이 올 한해 일군 농어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농어업의 미래를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팜과 스마트축산 등을 지키며, 도전과 혁신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시는 자랑스러운 농어업

최정근/기자

대전시,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평가 3관왕 달성 쾌거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평가 우수, 국무총리 기관표창 및 총 8억 5,500만원 특별교부세 확보

대전시는 2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지자체 대상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7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음으로써 최근 세 차례에 걸친 행안부의 각종 규제개혁 평가에서 모두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 총 8억 5,5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새정부와 민선8기 출범 초기에 일류도시 대전이 전국적으로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대전시가 지방규제혁신 평가 3관왕을 달성한 부문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10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12월)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12월) 등이며,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 평가를 모두 석권했다.

27일 행안부로부터 선정된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중앙규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과 지방규제혁신 전담반 운영 실적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대전시는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및 규제혁신 전담반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및 모범사례 확산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대전시청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국 지자체 참여 '제3차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동구 대청호의 '상수

원보호구역'관련 규제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5,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는 규제혁신 과정에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이끈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

으로써, 대전시가 정부 정책에 관심이 많은 주민과 경제·환경·건축 등 협회 실무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혁신 마중무리'운영과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및 규제혁신 토론회 참여 실적 등에 대한 우수함을 인정 받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규제혁신 협업체계구축,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성과 창출, 자치법규 정비 실적 등 전반적인 규제혁신 역량이 뛰어난 지자체를 대상으로 3년동안 우수기관으로 인정하는 인증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대전시가 신규 인증을 받아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함께 포상금 1억 원을 받게 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초기, '일류도시 대전' 건설의 초석을 놓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한 추진동력이 필수적"이라며,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의 이러한 노력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전국적인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그림자·행태규제 등 자체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원호/기자

단양군 다누리센터, 국내 최대 담수어류 체험공간 재탄생 추진

'23년부터'24년까지 90억원 투입해, 미디어아트를 포함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

충북도는 단양군 단양읍 다누리센터 내 운영중인 아쿠아리움 시설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45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 담수어류 체험공간으로 재탄생을 추진한다.

그동안 충북은 내수면 지역이라 해수부예산 확보가 어려웠으며, 이번 확보된 예산은 충북도와 단양군이 해수부, 기재부를 지속 설득하고, 지역국회의원을 수차례 방문해 이뤄낸 결실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현재 다누리센터에 있는 아쿠아리움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5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연면적 3,864㎡에 총 3층 규모(지하1.2층, 지상1층)시설을 갖추고 관람어(담수어류 포함 234종)를 전시운영 하고 있다.

아쿠아리움은 개관 이래 단양군을

찾는 방문객에게는 인기 있는 명소가 되어 연간 30만명이 찾는 명실공히 단양군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미디어아트를 포함한 아쿠아리움 시설이 완성되면 다양한 관광자원을 결합해 매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 될 것"이라며, "바다는 없지만 내륙만이 가지는 새롭고 매력 넘치는 공간으로서 아쿠아리움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이끌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단양군에 민물고기우량종자생산시설 25억원, 체험형 민물고기축양장 35억원 내륙어촌재생사업 54억원 등 내륙어촌의 발전모델 완성을 위해 집중투자 해왔다.

고정화/기자



김기재 영도구청장 대한민국복지문화대상 '지방자치부문' 수상

김기재 영도구청장이 공익채널 복지TV 부울경방송과 희망복지영남방송(주), 사단법인 충효예대학, 사단법인 국제청소년문화재단이 주관하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등이 후원해 개최한 2022 대한민국복지문화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익채널인 WBC복지TV 부울경방송과 희망복지영남방송(주)은 지난 12월 27일 오후 2시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2022 한국을 빛낸 대한민국 복지문화대상' 시상식을 열어 7개 분야 45명의 수상자를 발표하고 시상했다.

영도구청장의 복지문화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은 영도구 가족생활 지원시설 조성사업, 15분 도시 공모 선정, 출산지원금 출생아 1인당 500만원 확대, 청년기금 조성, 미래교육 지구 선정, 영도 트램 도입 추진 등 인프라 개선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자로 선정됐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상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제책임을 알고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더욱 안전한

고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년도 정책 하나하나에 진심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송종진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38회 경기교육대상 수상

반도체 고등학교 추진 및 학교 민원 해결 위해 중앙정부 등과 적극 소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8일 '제38회 경기교육대상'을 수상했다.

경기교육대상은 교육자치 발전 및 교육여건의 개선 등에 기여한 공을 평가해 경기도교육청이 수여하고 있다.

교육협력 분야에서 경기교육대상을 받은 이상일 시장은 교육부의 '디지털시대 인재양성 방안'에 발맞춰 반도체·AI(인공지능) 고등학교 설립과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지원, 진로·진학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장상을 교육부 차관을 두 차례 만나 24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했고, 임대회 경기도교육감을 만나서는 지역 교육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65억9000만 원 규모의 교육협력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안심 통학 버스 지원과 체육관 건립, 시설 개선 등 80억 원 규모의 환경개선사업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인프라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교육대상을 수상한 이상일 시장은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평소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임대회 경기교육감께서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용인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반도체·AI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이 적극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학교 신설 민원, 과밀학급 해소 방안 마련 등 변화된 사회환경에 부합하는 교육인프라 구



추과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용인의 다양한 교육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혜영기자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대상' 교육감 표창 수여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 7명과 지방자치단체장 3명

경기도교육청이 28일 남부청사에서 경기교육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10명에게 '경기교육대상' 표창을 수여했다.

경기교육대상은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과 경기교육 정책에 협력하며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을 기리기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교직원 7명, 지방자치단체장 3명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 수상자는 ▲유아교육 분야 구름산유치원 원장 김선희 ▲초등교육 분야 사동초 교감 강경순 ▲중등교육 분야 이의중 교장 박형, 세경고 교사 이준화 ▲특수교육 분야 수원서광학교 교사 황혜성 ▲교육행정 분야 도교육청 지방서기관 이세희, 용동중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유선남 ▲교육협력 분야 김동근 의정부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이상일용인시장이다.

김선희 원장은 유치원 자율교육 실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했고, 강경순 교감은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황혜성 교사는 지적장애 학생들의 개별화 교육과 장애 정도에 따른 직업 전환교육에 헌신했다.

도교육청 이세희 지방서기관은 감



사를 통해 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탁금지법 홍보에 기여했으며, 용동중 유선남 주사보는 효율적 예산집행과 적극적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정보화 기자재 지원과 학교 밖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고, 이민근 안산시장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와 안산상호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한 공적이 크며, 이상일 용인시장은 안심통학버스 운영

과 통학로 개선 사업으로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임대회 교육감은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경기교육대상 수상자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새롭게 열어가시는 경기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교육 지원청에서 표창을 전달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2년 연속 최우수 운영팀 수상

2022년 직장운동경기부 우수 운영팀 포상 공모...전국 1위 차지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한 '2022년 직장운동경기부 우수 운영팀 포상' 공모 사업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 사업은 전국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규정 준수 △선수단 문화 조성 노력 △선수단 성과 평가 우수 활동 사례 등 총 4개의 심사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와 표준운영규정을 도입하고,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 등을 꾸준히 실시했다.

또한 지역사회에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봉사과 재능기부 활동 등을 펼쳐며 심사 기준 분야에서 크게 두드러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올 한해 전국체육대회 금3, 은2, 동1개를 포함해 각종 대회에서 금7, 은12, 동13개를 따내며 전국 최상위권의 실력을 뽐낸 진천군청 직장운동경



기부는, 이로써 실력뿐 아니라 시스템적으로도 최고의 환경을 갖춘 우수한 팀임을 전국에 다시 한번 알리게 됐다.

총 2억 5천만원의 포상금이 걸려있던 이번 공모에서,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이 중 3천만원을 최우수

포상금으로 수령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군과 직장운동경기부 모두의 노력으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선수 보호와 인권 증진에 더욱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조영임 광산구의원, 광주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광주 5개구의회 인사교류 협약 체결 등 진정한 의회 독립 공로 인정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28일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형수)가 주최한 지방의정봉사상 시상식은광주 기초의회 의원 가운데 의정활동이 우수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활동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조영임 의원은 제9대 광산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위원협의회 활동을 통해 광주 5개구 의회 인사교류 협약 체결을 이끌어 진정한 의회 독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지방의회가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제정과 함께 조직권이 전제된 인사권 독립을 구현하도록 근거 법령 정비를 촉구하는 등 의정 발전을 위해 앞장섰다고 평가됐다.

뿐만 아니라 광산구의회 제276회 정례회에서 의정역량 강화와 전문성 고취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광산구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국 기초의회 중 최초



로 제정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조영임 의원은 "광주광역시 5개구의회 인사교류협약으로 전국 지방의회를 선도해 나가는 첫 걸음을 내딛는데 힘을 보탠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

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현재 제9대 광산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사)거버넌스센터 지방정치연구회 공동대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이사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수행하면서 활동 중이며, 제8대 광산구의회 전반기 기획총무위원장, 그린뉴딜연구회 대표 의원을 역임했다.

김병수기자

원미희 강원도의회 의원, 청소년 1,071명이 뽑은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원미희 강원도의회원이 12월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2022년 제7회 청소년희망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청소년희망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청소년 희망대상'은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및 복지 증진, 조례·입법·정책 시행에 성과를 보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선정방식은 '청소년 희망대상' 선정 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 후 1000명의 청소년들이 직접 온라인 투표를 하고 최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번에는 1,071명의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더욱 의미가 있다.

원미희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고립가능성이 있는 1인가구 청소년을 사전 발굴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애고 청소년들이 건강

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정된 '강원도 1인가구 지원조례'를 단독 발의했고, 장애,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직장 등 사회활동을 포기한 청(소)년(일명 '영 케어러'·Young Carer)을 위한 '강원도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조례'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원미희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

센터가 없는 지역의 청소년이 인근 지역 센터를 이용할 때 식대 등의 비용을 내는 불합리한 문제도 해결했는데, "청소년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학업이나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이원희기자



경북도, 심해연구산업클러스터·울진에 조성

우주를 넘어 심해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해과학 연구센터 건립 4억원이 반영돼 '우주를 넘어 심해로!'라는 심해연구산업 조성의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상북도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먹거리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동해안의 심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추진하기 위해 울진에 심해연구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계획했다.

심해는 온도, 압력, 염도, 빛 등에서 극한의 환경으로 개발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개발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영학 아바타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69세)이 2012년 3월 26일, 인류 최고 깊은 수심 1만908m까지 유인잠수정을 타고 도달한 바 있다.

국내 심해 연구와 개발은 수심이 얕은 서해나 남해와는 달리 평균 1700m 최대 3700m의 깊은 수심을 가진 동해와 가장 적합하다

국내 심해연구는 전무하고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본원 해저자원연구본부에서 태평양, 인도양 등 대양 심해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1989년 이후 해외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특화돼 있어 국내 심해과학 연구센터가 꼭 필요했고, 동해 연안에 근접한 울진은 심해연구의 접근성 및 효율적인 측면에서 최적의 장소이다.

미지의 심해에 존재하는 생물 및 생물자원에 대한 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기술과 이를 실행할 연구장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연구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심해는 미래 지속가능한 유용 해양 생물 및 유전자 자원의 미탐사 지역으로, 미탐사 지역의 신생명자원 발굴과 확보의 우선 선점을 통한 해양 바이오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또 미발굴 해양생물 분석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차세대 재료 및 신약 개발 등 인력을 양성으로 지역 고용창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환동해 해양은 북한, 러시아, 일본과 경계를 대치하고 있어 해양영토관리 및 해양자원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접국인 일본에 대응해 심해탐사 기술개발 및 광물자원 등 심해 광물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심해연구는 꼭 필요하다.

도는 지난해 심해연구센터 설립의 타당성을 마련하고 연구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동해안 심해과학 세미나'를 열어 이론적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경북도는 울진군과 함께 환동해 심해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획 연구용역을 지난해 완료했고, 1단계로 연구지원 시설 구축실시계획을 시작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나선다.

심해과학연구센터는 심해연구산업 클러스터의 1단계 사업으로 총 195억원이 투입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동해연구소 부속센터로 건

립된다. 건축비 195억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출연 사업으로 추진된다.

심해과학 연구센터는 울진 죽변면 후정리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에서 부지 1만9835㎡, 건축연면적 6100㎡로 연구동 4000㎡, 실험동 2100㎡의 규모이다.

심해연구동은 심해 실험 및 탐사장비를 관리 운영하고 심해 기초 연구를 전담하고, 심해연구동은 생태모의 실험, 다수준대 양식실험, 수자원의 산업적 활용방안 등을 모색한다.

심해과학 연구센터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동해연구소(울진) 산하 1센터 2실 7팀으로 운영된다.

총 운영인력은 43명이고 센터운영 5명, 인프라운영 18명, 심해연구동 20명으로 운영된다.

설립 후 5년간에 걸쳐 도입기 및 정착기 2단계로 나누어 센터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운영비는 연간 6억원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인프라운영 출연금으로 확보하고 연간 인건비 50억원

은 국가 R&D 및 연구시설 운영사업비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1단계 사업(195억원)이 마무리 되면 2단계 심해장비구축 500억원, 3단계 심해구조선 건조 900억원, 총 1495억원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심해연구개발촉진법을 제정해 해수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울진군과 해양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협업해 용역 중에 있다.

이와 별개로 울진에 왕돌초 해양기지를 해양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다.

왕돌초해양기지는 해양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왕돌초 위에 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하여 재난 대비 및 동해 해양환경 기초조사, 해중 모니터링, 해양과학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도는 해양과학분야의 발전을 위해 수중로봇 및 수중글라이더 기술개발, 무인해양장비연구,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왔다.

도 현재 해양과학 기업 지원, 해양신기술 인증 및 사업화 지원 등의 다양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남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동해안을 품고 있는 경북은 심해과학 연구의 최지이며, 심해자원을 활용해 만들어지는 신산업을 환동해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며 "2012년 3월 26일 아바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지구상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1만908m까지 유인잠수정을 도달시켰다. 이제 한국의 아바타, 심해과학연구센터가 울진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경북은 심해연구의 산업·관광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심해과학 연구센터(조감도)

충남 수출 2년 연속 1000억 달러 돌파

11월까지 1003억 달러 집계...무역수지 흑자도 '전국 1위' 기염

충남도 내 수출액이 2년 연속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 수출 기록을 1년 만에 다시 쓸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 한파 속 국내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거둔 성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충남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내 기업들의 지난달 말까지 수출액은 총 1003억 4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1260억 달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자, 지난해 같은 기간 939억 7800만 달러에 비해 6.8% 증가한 규모다.

12월 한 달 동안 수출액을 추가하면, 지난해 거둔 기록(1041억 1600만 달러)을 뛰어넘으며, 2년 연속 수출 1000억 달러 돌파와 사상 최고 수출 기록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까지 품목별 수출액은 △반도체 420억 6700만 달러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121억 7500만 달러 △컴퓨터 100억 8800만 달러 △석유제품 95억 7300만 달러 △합성수지 33억 3600만 달러 △석유화학 중간 원료 24억 3400만 달러 △기초유분 17억 8000만 달러 △건전지 및 축전지 16억 6500만 달러 △정밀화학 원료 16억 3000만 달러 △자동차 부품 15억 9600만 달러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반도체가 1.9% 감소했으나,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13.2%, 컴퓨터 3.9%, 석유제품 50.6%, 합성수지 36.4%, 석유화학 중간 원료 4.2%, 기초유분은 81% 증가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최근 들어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컴퓨터 등 충남 주력 품목 수출이 감소했다.

반도체의 경우 D램과 낸드플래시 등의 제품 가격 하락으로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줄며 수출 감소를 보였다. 디스플레이 역시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IT 전방 수요 부진, LCD 부문 OLED 사업 전환과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여파로 전년 대비 5.1% 감소하며 230억 5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은 212억 9000만 달러 19.9% 증가, 미국 121억 4800만 달러 26.3% 감소, 대만 68억 5300만 달러 12.8% 증가, 싱가포르 27억 7500만 달러 50.5% 증가, 일본 24억 3100만 달러 5.3% 감소, 인도 24억 1900만 달러 28.3% 증가를 각각 보였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20억 7700만 달러, 14억 8100만 달러 수출로 각각 275.5%와 129.3% 증가했다. 수입액은 468억 3300만 달러로 전년(333억 8500만 달러)에 비해 40.3% 급증했다.

충남도 수출액이 2년 연속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 수출 기록을 1년 만에 다시 쓸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 한파 속 국내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거둔 성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충남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내 기업들의 지난달 말까지 수출액은 총 1003억 4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1260억 달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자, 지난해 같은 기간 939억 7800만 달러에 비해 6.8% 증가한 규모다.

12월 한 달 동안 수출액을 추가하면, 지난해 거둔 기록(1041억 1600만 달러)을 뛰어넘으며, 2년 연속 수출 1000억 달러 돌파와 사상 최고 수출 기록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까지 품목별 수출액은 △반도체 420억 6700만 달러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121억 7500만 달러 △컴퓨터 100억 8800만 달러 △석유제품 95억 7300만 달러 △합성수지 33억 3600만 달러 △석유화학 중간 원료 24억 3400만 달러 △기초유분 17억 8000만 달러 △건전지 및 축전지 16억 6500만 달러 △정밀화학 원료 16억 3000만 달러 △자동차 부품 15억 9600만 달러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반도체가 1.9% 감소했으나,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13.2%, 컴퓨터 3.9%, 석유제품 50.6%, 합성수지 36.4%, 석유화학 중간 원료 4.2%, 기초유분은 81% 증가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최근 들어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컴퓨터 등 충남 주력 품목 수출이 감소했다.

반도체의 경우 D램과 낸드플래시 등의 제품 가격 하락으로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줄며 수출 감소를 보였다. 디스플레이 역시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IT 전방 수요 부진, LCD 부문 OLED 사업 전환과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여파로 전년 대비 5.1% 감소하며 230억 5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은 212억 9000만 달러 19.9% 증가, 미국 121억 4800만 달러 26.3% 감소, 대만 68억 5300만 달러 12.8% 증가, 싱가포르 27억 7500만 달러 50.5% 증가, 일본 24억 3100만 달러 5.3% 감소, 인도 24억 1900만 달러 28.3% 증가를 각각 보였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20억 7700만 달러, 14억 8100만 달러 수출로 각각 275.5%와 129.3% 증가했다. 수입액은 468억 3300만 달러로 전년(333억 8500만 달러)에 비해 40.3% 급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크게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원유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50.4%, 석탄 수입액은 115.8%, 석유제품 수입액은 5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는 535억 800만 달러로 전국 1위를 유지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까지 6290억 달러 수출에 6715억 달러 수입으로 42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홍만표 도 국제통상과장은 "코로나 19, 공급망 위기 등 여러 악재 속에서도 충남도의 수출 기업에 대한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등에 힘입어 충남 수출이 2년 연속 1000억 달러를 넘어

다"라며 "2030년 수출액 2000억 달러를 목표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대한민국 수출 1위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자율선택형 수출기반 활용 △수출입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해외 시장개척단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등 28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월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 데이'를 통해서는 도내 20개 기업이 6567만 달러의 계약 상담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내년 1월에는 세계적인 가전박람회인 CES 2023에 도내 5개 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경기도, 2023년 유망환경기업 15개사 선정. 맞춤형 사업비 등 3년간 지원

도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환경기업 15개사 지정

경기도가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내 중소·중견 환경기업 15곳을 '2023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했다.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은 도내 우수 중소·중견 환경기업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지난 10월부터 도내 환경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기업 비즈니스 전략, 성장가능성, 기술력, 개발실적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해 1차 서류 평가와 현장실사,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2023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신규지정은 ▲주식회사 세림비엔지 ▲주식회사 솔브 ▲영진아이엔디(주) ▲하이코어 주식회사 ▲코스코페이퍼(주) ▲이엔에이(주) ▲주식회사 네오디아 ▲케비환경기술(주) ▲한국바이오플랜트(주) ▲케이원에코텍(주) 등 10개사, 재지정은 ▲주식회사 지온 ▲(주)쓰리에이씨 ▲(주)로스웰워터 ▲굿바이가(주) ▲빛나메크로(주) 등 5개사로 총 15개사이다.

도는 지난 23일 이들 기업에 지정서를 수여했으며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 간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취득, 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 연간 최대 500만 원과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환경 관련 사업 참여 시 우대가점 등 별도 혜택을 지원한다.

고품질 페트(PET) 재활용 칩을 제조하는 안산시 소재 한국바이오플랜트(주) 김학전 대표는 "정부에서 자원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기도에서 유망환경기업으로 인증해 중



으로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기업 홍보와 매출확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기후위기 인한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탄소와 에너지, 자원을 줄이는 기업일수록 내수시장과 해외시장 개척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경기도 유망한

경기업이 지구를 살리고 경기도, 나아가 우리나라를 성장시키는 새로운 성장엔진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유망환경기업 126곳에 약 16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 도내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조혜영기자

포항시, 경제임업을 이끌어 나갈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건립한다

전국 최초 경상권

목재자원화 신규사업비

확보, 국비예산 총 100억 원

포항시는 산림에서 생산되는 우량목재와 산불피해목 등 가치 있는 폐목활용을 위한 '경상권 목재자원화 센터 건립'에 국비예산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포항시는 이번 예산확보를 위해 타당성 검토 구상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인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한 결과 전국 최초 경상권 목재자원화 신규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5억 원을 반영해 기

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포항시 복구 기금엔 일월에 조성되는 시설에는 원목의 자원화를 위한 건조장, 고품질 원목 목조건축 자재 자원화장, 가공기, 성형기 등 목재자원활용 인프라 시설사업을 추진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목재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림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전국 산림면적의 21.5%, 국보급 목재문화재의 34%가 집중된 목재산업 선도도시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목재산업 인프라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올해 3월 울진군 산불로 208만㎡의 피해목이 발생하고 유류 목재자원이 늘어 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목재자원화 센터가 준공이 되면 목

조건축을 확대, 국산목재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국산목재 자급을 향상, 지역고용창출효과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탄소저감 효과가 적은 노령목 등을 위주로 별채해 목재를 재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본 사업은 경상권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목재펠릿 지원 등 에너지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목재자원화 공급확대를 통해 자연자원순환, 탄소흡수원 촉진 녹색건축보급 측면에서 장기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국산목재의 이용은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방안이다. 목재는 철근, 콘크리트 등 타 재료에 비해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량과 배출되는 탄소량이 적은 소재이다. 목재를 생산하는데 비해 동일 부피의 알루미늄을 생산하는데 796배, 철강은

264배, 콘크리트는 6.6배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와함께, 목재 이용은 '조림-송가꾸기-목재수확-목재이용'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목재를 정확히 이용하는 것은 산림이 흡수한 탄소를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목재는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조림한 수종들이 목재자원으로 본격적인 이용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경제임업을 이끌어 나갈 핵심 동력으로 활용해 목재산업의 도약과 지역경제가 함께 발전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경북교육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인년이 저물어 가고, 희망찬 토끼의 해! 계묘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위기를 경북교육에 애정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잘 극복하며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3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에는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따뜻한 경북교육은 '우리 모두 다함께 온전한 교육회복,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이란 비전으로 교육결손회복, 취약계층 맞춤 지원,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의 3개 분야 86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결속 회복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종합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더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핀셋'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일상을 온전히 누리며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과밀학급 해소, 스마트기기 보급, 교원 심리 지원 등 교육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칠곡, 상주 수학교육센터, 전국 최초 발명체험교육관,

남부미래교육관 개관,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등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지향적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결실을 거두며 자랑할 일들이 많습니다. 타 시도에서 경북의 특성 확고로 진학하려는 학생이 1,105명으로, 20%가 넘습니다. 이것은 맛있

는 음식을 찾아가는 맛집투어와 같은 것입니다.

경북 직업계고 최종 취업률은 67.9%(전국 평균 57.8%)로 3년 연속 전국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며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5년 연속 학생부 전국 1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47개를 획득하여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감사할동 심사 최고 등급 A등급을 받았으며 교육기관 최초로 제1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지식행정부문에서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상 실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아주 큰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올해 수능 만점자 세 명 중에 재학생이 두 명인데 그중 한 명이 우리 경북 포항제철고 학생입니다. 그리고 3학년이 78명뿐인 소규모 농어촌 학교인 성주의 한 여고가 2023년 대입 수시 모집에서 S대 합격생 3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월드컵 16강 진출로 전 국민을 감동시킨 축구 국가 대표선수 황희찬 선수도 중, 고등학교를 경북에서 다닌, 경북이 키운 훌륭한 선수입니다. 지난해 올림픽 2관왕 김제덕 선수의 활약 등으로 650여 명의 타 시도 학생 운동 선수가 경북으로 유학을 오

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북교육의 경쟁력이고 저력입니다. 너무도 기쁘게 생각하며 자랑스럽습니다.

이는 꿈을 이루기 위해 힘든 시간을 이겨낸 학생,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 학부모님, 사랑과 열정으로 이끌어 주신 선생님과 한결같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좋은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개선하여 경북교육 발전의 탄탄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경북교육가족 여러분!

다가오는 계묘년(癸卯年)은 긴 코로나19로 위축된 교육활동을 온전히 회복하고 흔들림 없는 미래교육 정책을 펼쳐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으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4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실천하여 29만 명의 학생이 세계 무대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교육활동을 펼쳐 가겠습니다.

첫째, 삶과 연계하여 학생이 주인이 되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시대 변화와 교육 전환에 대한 요구, 불확실한 미래에 학생의 온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2025년 전면 시행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경북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발하고 매 학년 최대 68시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학교급별 학교 자율시간 운영 기반을 구축하여 경북의 특색을 살린 경북교육과정을 개발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맞춤형 놀이 연계 한글책임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 수학 교과 1수업 2교사제와 스스로 학업성취 인증제 고도화 작업을 통해 기초·기본 학력을 더욱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환경재난 등에 대

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초등 34시간, 중등 68시간 정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AI 기반 독서교육 지원 웹서비스와 영어 및 수학 학습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개별 학습 지원과 학생 주도 학습 이력 및 성장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초 이음교육을 확대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징검다리 교육과정을 도내 전 중학교로 \ 확산·운영하여 유·초·중·고 연계 학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2026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6,845명이 감소(2022년 대비 33%)합니다.

학령인구 감소 대책 지원팀을 조직, 운영하고 민·관·학 협의체 및 타 시도 협력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원격 화상 수업 학급(40학급), 공동 수업 학교(20교), 도·농 상생 학교(10교), 초·중·고 연계학교(20교) 등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통합운영학교를 지원하여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린 자생력 있는 학교를 육성하겠습니다.

작은학교 자유학기제를 164교로 확대·운영하고 에듀버스 및 에듀택시를 도입하여 통학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운영 우수학교는 품기움 작은 학교로 인증하여 작은 학교 운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북미래교육지구를 5개에서 8개로 확대·운영합니다. 지역어르신은 마을교사로 위촉하고 마을학교 및 마을교사 네트워크 운영 지원을 통해 학교와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교육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공용 학습 준비물 구입비, 진학지원금,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복지비 및 안경비, 현장체험학습 경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을 농산어촌에서 시 지역 전 학교로 확대하며 오후돌봄교실 670실, 방과후

연계형돌봄교실 250실을 운영하고 초·중·고 돌봄교실 간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하고 마을 밀착형 지역 특화 굿네스 사업을 확대하여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맞춤형 한국어 교육으로 학급당 10명 내외의 8학급을 운영 예정인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한국어교육

센터를 2023년 3월에 개관하여 다문화학생 학교 적응력을 높이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전 학생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며 전문가, 대학생과 다문화 학생 간의 K-문화 멘토링과 다문화 학부모 대상 취학설명회 운영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증청각장애학생 인공와우시술비 지원, 청각장애학부모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장애학생 자격증 취득과정 지원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메타버스 AI 활용 공간 구축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지원을 혁신하는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1학생 1스마트기기 보급을 완료하고 학교 내 모든 공간의 무선망과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며 수요자 중심 지능형 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교육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SW-AI교육 채움교실과 AI교육 선도학교 정보실, 협력적 사고능력 향상을 위한 미래형 컴퓨터실을 구축하고, SW-AI교육 교구 지원, 미래형 정보교실 환경을 개선하여 첨단 스마트 학습 환경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초등학교 디지털 튜터 및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 운영과 에듀테크 활용 교구 구입비와 교육용 콘텐츠 구입비 등의 맞춤형 정보화 지원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업무를 지원해 주는 학교지원 종합자료실 3.0 및 시공간 제약 및 부서 경계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무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교 업무경감 프로그램 등을 개발·확산하여 사용자 편의 중심의 스마트 업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경북교육가족 여러분!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며 그 희망을 키워가는 일이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최고의 학습경험을 통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년 2023년 경북교육의 슬로건은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입니다. 지금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무대는 세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삶의 힘을 키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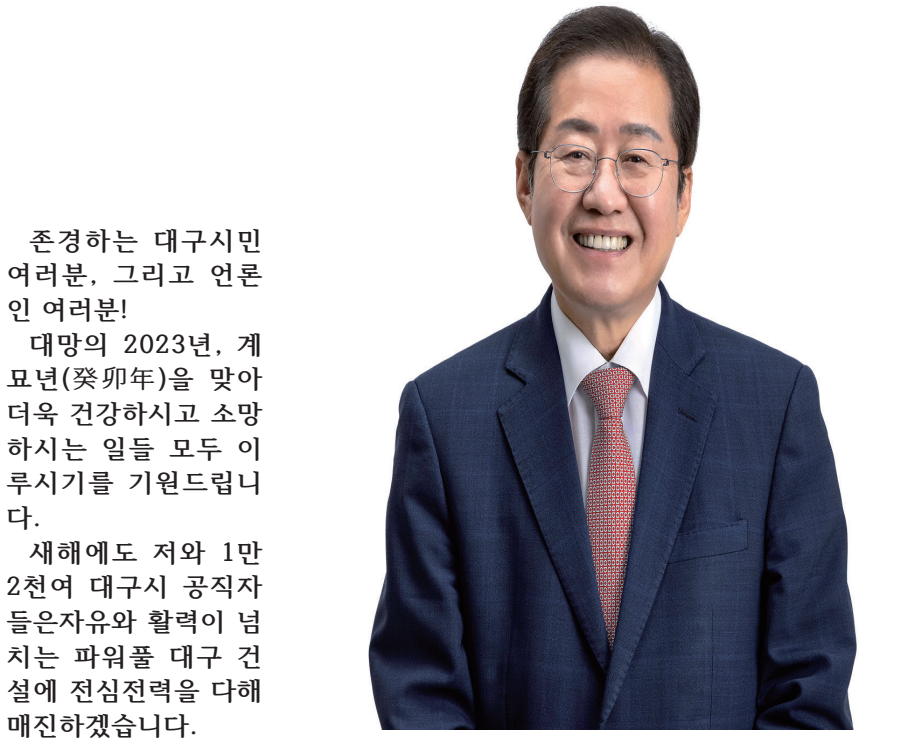
나날이 새로워지는 교육, 미래교육으로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만여 교육가족은 한마음으로 힘차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고 소외된 이웃에게도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8.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구시장 2023신년사

대구 굴기(崛起)의 원년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대망의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에도 저와 1만 2천여 대구시 공직자들은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건설에 전심전력을 다해 매진하겠습니다.

지난 임인년(壬寅年)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구시정을 대한민국의 모범으로 이끈 혁신의 원년이었습니다.

대구혁신은 'G7 선진국 시대'를 주창했던 제 약속의 출발이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선제적으로 착수한 공공혁신, 시정혁신, 재정혁신은 전국으로 거점없이 확산되었습니다.

공공혁신의 신호탄으로 추진된 市 산하기관 통폐합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모체(母體)가 되었고,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른바 '알박기 인사 근절 조례'도 서울시와 경기도 등 4개 광역단체로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또한, 법령상 폐지가능한 위원회의 55%를 통폐합한 시정혁신에 정부를 비롯한 6개 시도가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고강도 재정혁신은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의 3高 시대를 맞아대한민국 재정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미래 50년을 향한 핵심 정책들도 거침없는 확을 그렸습니다. 대구 재건(再建)의 기폭제가 될 통합신공항 건

설은 기본계획을 확정 하였고, 군위군 편입 법률까지 통과되어 든든한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많은 물 하이웨이 사업도 안동시와 원수사용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안전한 식수 공급의 물꼬를 텄습니다.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마스터플랜도 완성되었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군부대 통합 이전의 불씨마저 새롭게 지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숨 가뻐던 2022년 한 해에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은 대구가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굴기(崛起)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집대성한 미래 50년의 목표를 향해 물러서지 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는 유진무퇴(有進無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대구 대혁신의 용광로가 될 통합신공항 건설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7월이 되면 대구가 특·광역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3대 도시를 향해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제 특별법만 통과되면 신공항 건설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2030년까지 첨단산단과

에어시티, 연결교통망까지 갖춘 첨단물류 여객공항을 완공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등신공항경제권을 구체화하는 설계에 착수해 세계로 도약할 미래 50년의 초석(礎石)을 굳건하게 다지겠습니다.

둘째, 5대 신산업을 전국 최고의 미래자산으로 키워가겠습니다.

먼저 UAM 산업은 수도권 이남에서 최대 규모인 모빌리티 부흥 생태계를 활용해 실증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센서산업을 집적화하는 D-센서 클러스터 구축에 매진하겠습니다.

로봇은 서비스 로봇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에 역량을 모으고 헬스케어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도 신속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ABB산업은 2조 2천억원 규모의 8대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금년 내에 확정·추진하는 등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산업의 역량을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시 그랜드 디자인으로 50년 미래공간을 설계하겠습니다. 市 전역에 분포한 핵심공간들이 특정 지역만의 개발이익이 아닌 '하나의 도시, 대구'라는 대원칙 아래 미래형 도시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향후 20여 년에 걸쳐 대구의 지도를 군부대, 법원·검찰청 등 공공시설의 후처리를 중심으로 새롭게 그리겠습니다. 대상지 400만평, 사업비 100조에 달하는 도시 그랜드 디자인은

단언컨대 대구시 사상 최대의 건설공사 가 될 것입니다.

대구 현대사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도시 재건(再建)을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맑은 물 하이웨이를 국가 주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남의 젓줄인 낙동강은 1,3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가적 차원의 상생노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250만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해 국무조정실, 환경부와 최적의 활용방안을 도출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안동시와 체결한 MOU와 함께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 방안 검토용역을 상반기 내로 마치고 30년 넘게 끌어온 시민의 생명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강도 채무감축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제2위의 채무 도시라는 불명예는 파워풀 대구, 행복 대구와 결맞지 않습니다.

지난해 이미 총 2천억 원의 빚을 갚았고 올해도 공공부문의 자발적 예산 절감을 통해 1,400억 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2천억 원이 넘는 신규 지방채도 금년에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두터운 지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구 미래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습니다. 시민을 보듬는 필수 예산은 반드시 투입하되선심성 예산은 철저히 배제하여 임기 내에 1조 5천억의 채무를 상환하는 고강도 재정혁

신을 겁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전무후무한 투자유치의 새 역사를 쓰겠습니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원스톱 기업투자센터를 신설하고 유치활동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기업인 발레오와 이케아, 코스닥 3위 기업인 엘앤에프에 이어 지난달에는 한화그룹과도 3조 원 규모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 10년간의 성과에 버금가는 4조 원대의 투자유치를 단 6개월 만에 달성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새해에도 막힘없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5대 미래신산업과 첨단 지식서비스 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전략 유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들과 함께 글로벌 대구로의 순항을 더욱 가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복을 위한 체감행정을 뿌리내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였고 대구형 택시앱도 서비스를 개시해

시민과 업계가 함께 윈윈하는 민생안정(民生安定)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자세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5%로 감축하고 중수도 시스템을 市 전역에 확산하는 탄소중립 도시로의 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설계를 마치고 선천에는 물놀이장도 개장하여 내륙수변도시에 걸맞는 청정환경(淸淨環境)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대구의 대표 축제들을 통합해 봄, 가을에 성대하게 개최하는 등, 문화만족(文化滿足)

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올 한해에 높아진 삶의 질을 시민들이 직접 느끼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감행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지난해는 대구가 대한민국의 모범이 된 한 해였다면 새해는 번영과 영광으로 우뚝 솟아오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아낌없는 동참이 필요합니다.

계묘년 한 해도 여러분과 두 손을 맞잡고 시정혁신의 고삐를 절대 늦추지 않겠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히 타파해 정의와 원칙을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후대에 물려줄 주요 핵심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여 대도약의 기반을 닦겠습니다.

특히, 통합신공항 건설은 군위의 광활한 대지를 품고 하루에 구만리를 나는 대룡(大鵬)처럼 거침없이 비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올 한해를 250만 시민이 힘차게 다시 일어나는 대구굴기(大邱崛起)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역사적 도전에 시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묘년 새해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 1. 1.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광주광역시 남구, 길거리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연말까지 정비기회 부여, 새해부터 강력 처분

광주 남구는 26일 “보행자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길거리 불법 적치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며 “불법 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 이유는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등 불편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특히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최근 대책회의를 개최해 올해 말까지 자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뒤 내년 1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새해 시작과 동시에 기동순찰반 2개조를 편성해 불법 적치물이 밀집해 있는 독립로와 봉선중앙로, 군분로, 천변차로, 봉선로,

대남대로, 라인효친 앞, 서문대로, 궁전제과 뒤편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은 연중 수시로 진행되며, 도로 위 불법 정육을 일삼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근거해 1차 자율정비를 유도하는 계고서를 발부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언론 홍보와 사전 예고를 통해 불법 적치물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유예한 만큼 향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며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김병수/기자



경기도, 내년 4월까지 무기산 사용 등 김 양식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12월 28일부터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경기도는 28일부터 내년 4월 21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 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김 채취가 본격화 되는 시기인 겨울철에 김 양식장에서 무기산(염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면허 구역 외 양식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66곳(3,100ha)으로 도 해양수산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화성시, 안산시 등이 참여해 매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유해화학물질(염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이물질 제거 효과가 높고 김 병해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유독물질로 분류돼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돼 있어 대부분 유기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이를 음성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해상에서는 도, 안산시, 화성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육상에서는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안산 탄도·행남곡, 화성 제부 공평항 등) 주변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6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 염소이온 농도 9.5% 이하의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안산·화성시 김 양식장에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

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도 예외없이 할 계획이다.

김성근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무기산 사용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경기도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김 양식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해 무기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 관리선 사용 위반 등 총 7건을 적발해 사법처분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조혜영/기자

인천시, 2022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106곳 적발

원산지 미표기 및 거짓 표기 업소에 과태료 및 사법처분

인천광역시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 까지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10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6개(91%)의 업소에는 과태료 600여 만원을 부과했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0곳(9%) 업소는 사법처분됐다.

인천시는 시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기 위해 2023년에도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수산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산물 수입현황과 가격, 유통·판매 동향 등을 살펴 위반 의심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 수입산) 및 가공품을 단속한다. 시민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의 수산물 유통·판매업체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음식점은 1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물기술지원센터 소장은 “부정식품 구입으로 소비자가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부정 유통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상인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종남/기자

타종행사 및 주요 관광지... 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하는 종로

보신각 타종행사 지원 위해 안전요원, 청소년력, 구급인력, 불법주차 단속원 대거 투입

종로구가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에서 개최되는 다수 행사와 다중밀집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가장 먼저 구는 31일 보신각 일대에서 약 1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종로경찰서, 청소년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본 행사 시작에 앞서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보신각 주변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안전요원 약 60명(서울시 투입 안전요원 총 957명) 배치할 계획이다.

또 행사 전후로 종로1~2가, 청계1~2가, 우정국로, 광화문광장 주변 등에 160여명의 청소년력과 장비 15

대를 동원해 폐기물 수거처리와 도로 노면청소를 강화한다.

보신각 일대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 역시 빈틈없이 정비하고 불법노점상 단속반, 타종인력 구급인력, 불법주차 단속 인원을 투입해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이밖에도 종로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주요 관광지와 신년 해맞이 명소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익선동, 관철동 젊음의 거리, 대학로 문화지구 등에서 불법광고물과 노점상, 불법주정차 단속, 도로시설물 정비를 진행하고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현장 질서 유지에 매진하고 있다.

기존 관제요원 외 추가근무자를 추

가 투입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 과밀지구를 중점 관제하고, 다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상황실도 별도 운영한다.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는 인양산 정상과 팔각정 일대의 안전난간, 목재데크, 공원등점멸 상태 또한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1월 1일에는 상황실과 현장기동반을 운영해 안전 관리에 나선다.

정문현 구청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대규모 행사는 물론 관내 다중밀집지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구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차량 공회전 및 배출가스 단속 실시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겨울철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의 과도한 공회전 및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불시에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일산서구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은 차고지, 주차장 등 총 24곳이다. 시민들이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및 자동차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차량 공회전 행위 및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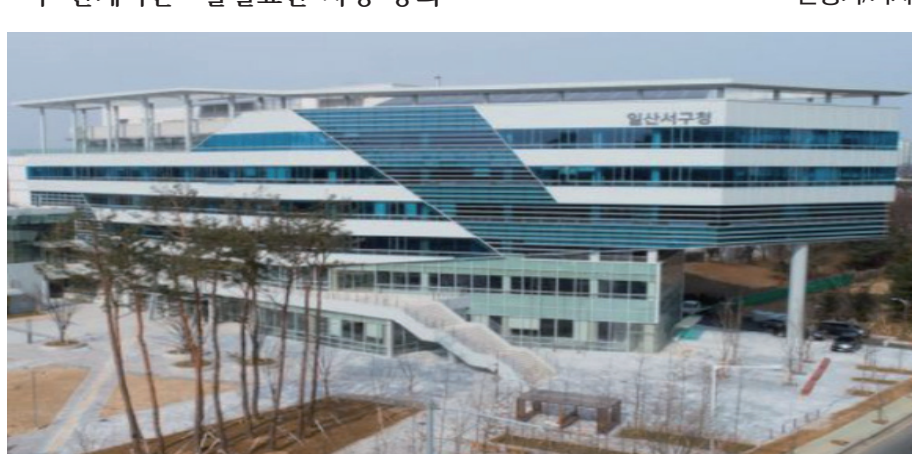
단속 대상 차량은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 및 경우 자동차에 해당된다. 금일 단속에서는 위반 차량을 적발하지 못했으나 향후 위반 차량이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 밝혔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C를 초과하거나 영상 5°C 미만인 경우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 등은 공회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불필요한 차량 공회

전을 줄이면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량이 줄어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낭비되는 연료 또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영기/기자



평택시,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행위 사전예방 홍보 총력

내 땅, 나도 모르게 불법 폐기물 투기장이 될 수 있습니다

평택시는 물레 버려진 방치폐기물로 인한 악취 등 생활환경 저해 및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등 예방 홍보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적이 드문 감시 사각지대에 폐기물이 버려지는 경우, 행위자를 찾지 못해 현장 조치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불법투기 장소가 되는 등 단속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경기침체를 틈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는 접근하여 안심시킨 다음 건물·부지 등에 다량의 불법 폐기물을 투기·방치 후 도주하는 범죄행위가 성행할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평택시는 건물·토지주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보게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행위 근절과 예방을 위한 홍보를 내년 3월까지 다양한 방법(시내 및 외곽노선 버스광고, 버스정보시스템(BIS) 활용, 행정계시



대 홍보현수막 설치, 관련부서 및 공인중개사 등에 홍보 포스터 배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 행위가 발생되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단속 강화

는 물론 지속적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사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이 관심을 갖고 감시와 신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춘천시,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와의 전쟁, 10일간 80건 적발...매달 단속의 날 지정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80건 적발

춘천시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0일 동안 80건을 적발했다. 이를 계기로 시는 내년부터는 매달 집중단속의 날을 지정하는 등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 80건을 적발해 이중 56건에 대해 과태료 395만원을 부과했다.

이 기간 중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뿐만 아니라 단속지역 자생단체 100여명도 한파 속에 함께 현장에 나와 분리배출과 올바른 배출에 대한 홍보 활동도 했다.

특히 육동한 춘천시장도 직접 야간 단속에 참여해 불법투기자를 적발하고, 불법투기 근절에 대한 시민 초소

도 했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배출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내년에는 집중단속의 날을 지정해 집중단속과 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원동촌, 읍면동별로 단속을 진행하고,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이통장, 환경미화원에게 무단투기 명예단속원증을 발급하여 연중 계도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단투기 단속 자원봉사자를 신청받아 명예단속원으로 임명해 우리는 춘천시민이고 춘천은 우리가 지킨다를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들은 내 지역 투기자에 대한 지도와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에 힘쓸 것이며 내 집 앞 집하장 관리에 힘을 보

낼 것이다. 현재 생활쓰레기 불법 단속카메라 고정식 34대, 이동식 15대가 설치돼 있고 자원순환관리사와 강원환경감시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동참해 나갈 것이다.

한편 춘천 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건수는 2018년 178건, 2019년 49건, 2020년 1,239건, 2021년 1,168건이다.

올해도 현재 기준 1,636건을 적발,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올바른 배출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단속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와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경북도 2022년 도정성과와 2023년 도정방향



경상북도는 지난 27일(화)14시, 도청 1층 열린도서관에서 '2022년 도정 성과와 2023년 도정 운영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인사말씀에 이어 2022년 도정성과와 2023년 도정 운영방향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이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취재진은 이 지사의 브리핑을 들으면서 그가 왜 '경북의 대통령'인 경북도지사'가 돼야 했는가를 단적으로 입증하듯 경북도민과 언론인들에게 정말 시원시원한 화법으로 2022년의 성과와 2023년 경북도의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모기자의 말씀처럼 "도대체 IQ가 얼마나 높으신지 궁금하다"라고 말하는 것만은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해박한 직무지식과 언론인들의 예민한 질문에도 거침없는 답변을 내어 놓는 등, 이철우 도지사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에 취재진은 이철우 지사의 2022년 도정성과와 2023년 도정운영 방향을 지면에 담아왔다.

이철우 도지사는 "언론인들에게 오히려도 균형잡힌 시각으로 경북도정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해주신대 대한 감사인사 후,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의료현장에서 고군분투 하는 의료진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울진산불, 태풍 헌남노로 피해를 입은 도민여러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 후, 2022년 경북도정 성과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2022년 도정 성과

▲ 먼저, "올해는 무엇보다 지방시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 직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 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는 뜻을 직접 전달하면서, 대통령께서는 역대 인수위원회 최초로 「균형발전TF」 설치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로 화답해줬다.

또한, 새정부의 지방시대는 50년 넘게 이어온 수도권 집중의 물결을 돌리고 지방이 다양한 모습을 발전하면서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이며, 그 출발점에 바로 우리 260만 도민들이 함께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를 위한 숙원사업 해결
10년이 넘는 노력으로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예산 확보, 중부선 유일미연결 문경~김천 구간 건설사업 6



▶대학의 재도약을 위한 지역혁신 플랫폼 출범

지난 2년간 대학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는 심정으로 연구중심도정을 포함한 대학살리기에 매진, 대구경북지역 혁신플랫폼을 출범시켰고, 지역의 23개 대학과 20개 기업이 공동으로 매년 1,140명을 선발해 교육 리를 제공, 지역장착으로



년만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지방시대로 가는 교두보요, 동해안 관광랜드 마크가 되게 했고, 중부선 철도건설은 경북의 새로운 KTX생활권이 될 것이다.

▶상상조대 규모의 국가투자예산 확보와 투자유지도 확실한 성과 달성

국가투자예산은 지난해 보다 9.3% 증가한 10조 9,514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특히,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50%이상! 신규사업 예산도 2배이상!' 증가시켜 4차산업혁명시대와 지방시대로 가는 마중물을 마련했으며, 또 올해 1,950억원에 달하는 외부차입금을 전액 'ZERO화'와 4년간 재정혁신 계획도 실행해 민선 8기 동안 '재무제로'도 실현케 됐고, 또한, 기업투자유치는 불황속에도 당초 목표를 상회, 8조8천228억원을 이끌어 냈고, 11,469명의 신규고용도 창출했으며, 특히, 조단위 메메드급 투자인 반도체는 작년보다 투자액이 4배 증가돼 경북에서 반도체 분야가 다시 일어서는 발판을 마련했다.

▲지방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한 대영국책사업 유치

▶국내 153개 단지에 5,000개가 넘는 공장, 17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산업단지' 이곳에는 총예산 6천억원이 넘는 '동남권 산단대개조'와 '농공단지 대개조'사업 유치, '탄소 중립과 디지털 경제의 전진기지'로 '지방소멸 극복의 성공모델'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다.

▶규제를 풀면 기업이 모이고 기업이 모이면 일자리가 생긴다.

올해 경산에 '전기차 무선충전 특구'를 유치해 4년 연속 규제자유특구를 유치한 유일한 곳이 됐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산업 전진기지를 보유하고 됐다. 그동안 4개 특구에 70개의 기업이 이전해 4조 1,634억원을 투자했고, 1,500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다.

▶디지털 시대 대전환은 메타버스 수도 경북!으로 열려 가

지방정부 최초, 메타버스정책관을 신설, 138개의 기업, 22개의 대학과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고, 특히 올해 신라왕경 메타버스 복원과 메타버스 신업단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와 데이터센터와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 디지털 시대 주도권을 선점해 가고 있다.

▶문화와 관광의 대전환에도 많은 성과들이 나타남

하회별신굿탈놀이, 청단놀이 등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전 세계로부터 가치를 공인받았고, 경북은 유형과 기록유산, 무형문화유산까지 보유한 세계유산의 보물창고로 재탄생한 것은 전통유산을 보존해온 문화예술인들의 노고라고 감사를 표시했으며, 또, 2025년 APEC정상회의 유치에 도전하는 경주는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 보문단지 일원에 융적률과 영업제한 완화 등 규제완화와 마이스 산업 진흥을 위한 국비지원을 받게 됐다.

▲공부하는 공직사회를 위한 노력 지속

2018년 겨울부터 시작한 화공특강(200회이상) 등, 직원들은 공직에서 일의 본질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힘이 생겼고, 많이 읽는 문화에 대해 도청도서관도 개관하는 등 향후, 도청을 지식의 창고요 미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조직으로 만들어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살기좋은 경북 살아가는 경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2022 도정성과를 마무리했다.

2022년 한해를 거침없는 하이킥으로 마무리한 기자간담회

◆2023년 도정운영 방향

▲지방시대 일자리 혁명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되찾아 주겠다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는 농업과 농촌의 희색이 있어 가능했기에 이것이 헛되지 않게 농업 대전환을 통해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처럼 농업을 반도체에 버금가는 먹거리 산

치로 세계에 경북을 알리고 영일만 대교,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과 함께 동해안 일대 해양레저산업에 집중, 울릉공항까지 연결 동해안 국제관광벨트를 만든다.

▲국민행복시대를 위해 대학의 힘으로 교육혁명도 이뤄

기업과 지방정부, 이공계대학간 연합체를 구성하고 산업과 인재를 키우는 일들을 함께 고민 하고 실행해 나가며, 특히, 원자력, 바이오, 반도체, 미래차, 로봇으로 대표되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풍부한 인재가 넘쳐나는 경북을 만들고, 대학의 캠퍼스는 포스텍의 체인지업 그라운드 모델을 확산해 벤처창업 타운으로 재탄생시키며, 지역 혁신성장의 허브로 만들겠다.

▲돌봄 혁명을 통한 국민행복시대 열려 가

국민행복시대를 위해 아이를 낳으면 키우고, 국민들 마음까지 돌봐주며, 어디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부모에게 돌봄 급여 제공, 아픈아이 긴 급돌봄 센터, 24시간제 보육서비스업 추진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키워주는 나라의 모범 경북을 만들며, 경쟁과 코로나로 지친 청년과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돌보는 외로움 대책 추진 하며, 열악한 지방의료원의 서비스 품질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혁신도 실행하고, 특히 대학병원 고급의료인력을 공공의료원에 파견, 대학병원급 의료서비스가 가능토록 하며, 핫라 인도 구축, 응급환자 이송, 진료 연계 등 수준높은 의료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외국인 공동체 역량을 통해 진정한 선진국형 다문화 사회 육성

외국이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보는 건 아카데미를 휩쓴 한류와 문화의 힘, 역동적인 경제와 산업의 힘이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공존하는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다문화 공동체 사회에 진지한 고민과 해법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9월, 영주·영천·의성·고령·성주 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250명이 넘는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경북으로 올 예정이다.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은 시도지사에게 비자발급의 권한을 주는 외국인광역비자제도 도입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더 나아가 다문화 공동체 사회의 모범을 만들기 위해 한글교육을 전담하는 경북형 세종학당을 도립대학교에 개소하고, 대학들이 외국인들에게 양질의 직업교육과 선진형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한다.

▲2023년은 문화관광 혁명의 원년

4차산업혁명 시대는 일의 기계, 인간은 창의적 활동에 집중하는 인문과 디지털 융합시대로 최 우선 과제인 창의적 활동을 위한 디지털 창조인프라를 강화하며 메타버스수도실현을 위해 확 보된 한류메타버스 전당을 만들어 지역 노후화 공간을 디지털 콘텐츠 타운으로 재탄생,글로벌 메타버스 혁신특구와 경북 전역에 6개소에 달하는 한류 메타버스 거점을 조성 디지털 기술과 인문, 가상경제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메타버스 산업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특히 2025년 개최되는 APEC정상회의 경주 유



년들이 우리 경제성장의 주역이 되었고, 외국청년인재들이 경북에 와 교육받고 고국발전에 이바지토록 해주므로써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진정한 선진 대한민국의 역할을 다해 나간다.

▲신공약의 성공을 위한 실행력 강화

지방공약은 수요가 없다는 부정 시각을 경북이 바꾸도록 공약추진단을 공약추진본부로 조직 개편을 했고, 안정적 공약건설을 위해 국가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해 대구 경북 신공약을 지방시대 대표프로젝트로 격상하고, 특히, 공약 가는 길을 최우선 확보하며 주 변부를 국제도시로 만들고, 510만 대구 경북도민의 영원인 성공할 수 밖에 없는 공약을 만든다.

▲신공약의 성공을 위한 실행력 강화

끝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우리 대구 경북은 성공할 수 밖에 없고 될 수 밖에 없는 땅이 다라고 믿고 그 강한 믿음으로 도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면서 그동안 성원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로 마무리하면서 2022년 도정성과와 2023년 도정 운영 방향을 역설했다.

취재진은 이철우 도지사의 2022년 도정성과와 2023년 도정운영 방향을 들으면서 이 지사의 해박한 직무지식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절로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었고, 이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분을 경북의 수장으로 모시고 있는 경북도민의 한사람인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는 맘이 절로 들었다.

특히나 질의응답간 여하한 예민한 질의에도 조금도 막힘없이 '거침없는 하이킥'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한번 '믿음직=이철우'란 단어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됐다고 평가해보며 2022년 한해동안 거둔 엄청난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2023년에는 보다 도약하는 경북도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철우 도지사가 가진 소탈한 성품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더욱 발휘돼, 경북도정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광역자치단체로 우뚝 솟아나기를 기원드려 본다.

윤근수/기자



속초시, '시 승격 60주년 속초시민 새해맞이 행사' 개최

속초시가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내고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속초시민과 함께 희망찬 한 해를 기원하고자 오는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속초시 승격 60주년 기념 '2023 속초시민 새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다가오는 2023년은 속초시가 1963. 1. 1. 시(市)로 승격한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 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공연 및 다양한 체험부스 등 다채로운 행사로 치러진다.

밤 10시부터 시작하는 체험부스는 토끼 가면과 복주머니 만들기, 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하는 이벤트 행사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11시 이후에는 속초 시립풍물단의 판굿, 청소년 댄스팀 공연과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속초 사자놀이'와 '대동놀이'로 힘찬 새해를 여는 신명 나는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세계인의 이목을 주목시킨 '속초 사자놀이'는 행사장을 방문하는 속초시민 및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정부터는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불꽃놀이가 펼쳐지며, 새해맞이 행사를 찾을 속초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불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행사장에는 2023. 달, 토끼와 같은 각종 아름다운 빛 조형물과 새해에 바라는 소망과 덕담을 걸어두는 덕담존도 운영된다.

한편, 속초시는 안전한 새해맞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차량 및 인력을 행사장 내 배치하고, 자원봉사자 또한 30여 명이 투입되어 행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속초시 승격 60주년을 시민과 함께 맞이하기 위해 본 행사를 준비했다."며, "신명 나는 공연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따뜻한 옷차림으로 방문하시어 행사를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시 승격 60주년인 2023년에도 시민 모두 행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부안군 "2023년은 나의 것" 새해맞이 축제 큰 기대, 제16회 서림신문 썬키스페스티벌 군민대화합 축제로

새해 첫날 부안군민 화합을 기원하는 '부안군민 새해맞이 축제'인 '제16회 2023서림신문썬키스페스티벌'이 부안을 해들마루(썬키로드) 자연마당에서 펼쳐진다.

부안서림신문이 주최하고 서림신문 축제추진위원회 주관, 용기산악회와 부안수협, 민주평통부안군협의회, 부안군자율방범연합회 소속 부안읍방범대, 사회단체 등의 후원과 웃는돼갈비등의 먹거리 참여로 매년 1월 1일 아침 7시 부안을 주공1차 아파트 옆 썬키로드에서 치러지는 이 행사는 매년 참여 군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2회 동안 중단했다가 내년부턴 다시 치러지는 부안군 최초 민간협력 축제로 자리매김 되고있다.

2023년 1월 1일 아침 7시. "2023년은 나의 것이다"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새해맞이 행사는 1시간여 동안의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종 프로그램으로 참여 군민들을 감동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정이나 기관단체의 지원없이 순수 민간주도의 연례행사로 지난 2006년부터 16회째 치러지고 있는 해맞이축제에서는 새해 첫 태양을 보기위해 행사장을 찾은 군민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하기 위한 제전위원회의 정성이 곳곳에 배어 있는 행사이다.

이날 해맞이 축제에서는 용기산악회 회원들의 떡국 대접은 물론, 자진 참여로 군민들에게 핫팩과 차·음료와 장어국물, 군밤, 어묵, 삶은계란, 가래떡, 사랑, 세뱃돈 등을 나누는 행사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민주평통 협찬의 '소원의 글 에드벌룬에 띄우기'에서는 어린이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새해 소원을 적어 바구니에 담아, 참여군민 모두가 함께 에드벌룬의 줄을 잡아 띄우므로써 군민 모두가 하나임을 다시한번 보여줄 계획이다.

'2023m 걸으며 소원빌기'에 이어 치러지는 '행운남' '행운녀' 추첨에서는 성인 남녀 각각 1명씩을 추첨해 복돈 50만원씩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이날 행사에 참여한 토끼띠 어린이들에게 세뱃돈을 나눠주고 미래의 꿈나무로 튼튼하게 자라줄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빈틈없는 준비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축제위원들은 "2023년 1월 1일 부안군민 모두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며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 내는 민간 축제인 만큼 보잘것없이 보일 수는 있겠으나 군민 모두가 한자리에서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며 복을 빌어주는 행사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토끼처럼 높이 도약하는 새해 되세요... '2023 서울 대공원 점프 프로젝트'

서울대공원 만남의광장에서 토끼 조형 작품 23점 전시 (2.26.까지)

토끼띠 해를 맞이하며 서울대공원에서 '2023 점프 프로젝트' 야외 전시회가 개최된다.

전시회는 '22년 12월 26일부터 '23년 2월 26일까지 두 달간 서울대공원 만남의광장에서 개최된다.

계묘년을 앞두고 창작된 토끼 조형 작품 23점이 전시되며, 토끼처럼 높이 도약하고 희망찬 2023년을 맞이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다.

23점의 토끼 작품은 각기 다른 형태와 의미를 지니지만, 희망차고 보다 나은 새해를 기원하는 공통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작품은 성신여자대학교 조소과(지도교수 김성복) 작가들이 출품했다.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23팀의 작가들은 각자의 해석으로 토끼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재미있는 상상을 더했다.

각 작품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 씨앗처럼 퍼지는 원대한 꿈, 불가능한 꿈을 이루기 위한 도약 등 성장하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희망의 메시지를 시민과 이야기한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며 서울대공원

입구에는 공공미술 작품 2점이 전시된다. 발걸음을 크게 내딛고,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작품으로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함께 나아가는 의미를 전한다.

작품은 김래환 작가의 '나들이', 이호준 작가의 '접어 만든 사자와 아이' 2점이다. 작품 '나들이'는 서울대공원으로 소풍 가는 설렘의 발걸음을 표현했으며, 종이접기 형식의 철조작품 '접어 만든 사자와 아이'는 사자와 아이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형상으로 동물과의 동행 가치를 전했다.

두 작품은 공원 입구에 전시되어 공원의 표정을 밝게 하고, 더불어 공원 방문객들을 반가이 맞이할 예정이다.

토끼조형작품과 공공미술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 사회관계망(SNS)에 게시하면, 2023년 선물로 223명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전시장 앞에서 뛰거나 달려가는 등 도약하는 모습의 사진을 찍은 뒤, 개인 사회관계망(SNS)에 사진과 함께 #2023점프 게시글을 기재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는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3개 채널에서 진행되며, '좋아요'를 많이 받은 순으로 총 223명에게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외식 상품권 23명, 커피 기프티콘 200명)

이벤트 기간은 오는 2023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공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공원 이이동 관리부장은 "계묘년을 맞이하며 의미있는 전시회를 준비했다. 작품처럼 2023년은 평중경

충 높이 도약하고, 멀리 나아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경기도, 31일 옛 경기도청사에서 '2022 경기송년 컬러 페스타' 개최

기존 1회성 제야행사 탈피, 도민에게 문화와 예술을 통한 힐링 제공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오는 31일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2022 경기송년 컬러 페스타'를 개최한다.

"경기를 밝혀라! 기획의 해가 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송년 행사는 기존 제야의 흥 타종 등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한해의 마지막날 도민들에게 문화·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옛 경기도청사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장소별로 ▲(신관 1층) 가족오락관, 콘텐츠 영상존 ▲(신관 2층) 경기도레길 사진전, 도정 홍보공간 ▲(신관 4층) 클래식 음악회 ▲(구관 1층) 경기미술특별전 ▲(야외 잔디광장) 공연 및 레크리에이션, 그래피티 행사, 송년음악회, 해넘이 이원생중계, 소상공인 판매부스 운영 등이다.

우선 신관 1층에서는 가족오락관(레트로 게임장)을 운영해 젊은 아버지 세대가 즐겨했던 게임을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른 1층 공간에서는 '콘텐츠

영상존'이 운영된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음악 및 영화분야 청년들의 공연영상과 단편영화를 상영하는 가운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신관 2층에서는 '경기도레길 사진전'이 개최된다. 도 대표 걷기길 관광지인 '경기도레길' 홍보를 통해 도민 누구나 한 번쯤 방문하고 싶은 동기를 자극한다. 대한민국 대표 사진작가인 김명중 작가의 도레길 촬영사진을 전시하고 권역별 홍보영상도 상영한다. 행사장 곳곳에 비치된 스탬프를 수집한 도민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신관 2층에는 경기도 캐릭터(봉공이)를 활용한 팝업스토어 형식의 도정 홍보공간을 마련했다. 봉공이 개인·사무공간을 구성하고, 포스터·액자·도장 등 소품을 비치했다. 이러한 포토존을 통해 도민들이 사진을 찍으며 행사를 즐길 것으로 기대된다.

신관 4층에서는 소규모 클래식 음악회가 열린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 친근하고 대중적인 클래식 음악 위주로 도민에

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구관 1층에서는 경기도가 지원하는 신진작가 및 문화소외장르의 작품을 전시하는 '경기미술특별전'이 열린다. 소소한 일상에서 거시적인 사회변화를 기록한 도내 예술인의 작품 10여 점이 전시된다.

야외 잔디광장에서는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 오전 11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관객참여 공연 및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된다.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는 국내 유명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박준기 작가의 라이브 그래피티행사가 이어지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인디뮤지션과 인기가수 장민호의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송년음악회 중간 일몰시간에는 오이도 이원생중계를 통한 해넘이 관람행사가 열린다.

특히 행사 관람객이 모인 잔디광장에서 팔달산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수원시회의 협력으로 소상공인 판매부스를 설치·운영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는다.

조혜영기자

문화도시 포항, 프랑스 툴루즈와 함께 첨단예술도시로 나아간다

최근 '기계, 예술,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포스코 체인지업그라운드 포항 개최

(재)포항문화재단은 지난 21일 포스코 체인지업그라운드 포항에서 포항시, (재)포항문화재단, 포스텍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가 후원하는 '2022 문화도시 포항, 해양그랜드마리온에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포항문화재단 정경원 대표이사 직무대행, 포스텍 김무환 총장, 한동대 김종록 행정부총장, 프랑스 툴루즈시의 명문 시각창의대학 이아츠업(e-artsup Toulouse)의 총괄 지역 이사인 베랑제르 다스타락(Berengere Dastarac) 등이 참여해 포항과 프랑스 대학 간 예술·기술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포항의 글로벌 과학·기술·산업 인프라와 문화·예술이 결합해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문화도시 포항의 '해양 그랜드마리온에트 거점구축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먼저, 이주행 포항문화재단 문화도

시사업팀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올해 포항과 프랑스 작가들로 구성된 한·불 공동제작팀이 제작한 'd-Bot'의 시연과 제작팀의 발표가 있었다.

한·불 공동제작팀은 프랑스의 공공조각 설치예술가인 장 미셸 후비오(Jean Michel Rubio) 작가, 라 마신 참여작가인 앙리 갈로 라발레(Henri Gallot-Lavallee), 그리고 프로젝트의 총괄 감독인 김운환 해양 그랜드마리온에트 총괄 디렉터, 포항의 청년 작가 안효찬 미술감독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지역의 조선소 공간을 활용해 작품을 제작했다.

또한, 프랑스 라 마신(La Machine)의 총괄 아트 디렉터인 프랑소아 들라호지에르(Francois Delarozier), 프랑스 툴루즈시 이아츠업(e-artsup Toulouse)의 총괄 지역 이사인 베랑제르 다스타락(Berengere Dastarac)이 참여해 '아트 & 테크(Art&Tech), 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그리고 박주홍 포스텍 IT융합공학



과 교수, 이재영 한동대 기계제어공학부 교수, 박평중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HK연구교수, 김기흥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 등이 참여해 예술과 기술의 융합과 기계미학에 대해 포럼이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이종률 지역문화정책관은 "문화도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으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포항은 철강기업 포스코, 포스텍, 한동대, 로봇융합연구원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결합해 첨단예술도시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번 '해양 그랜드마리온에트 국제컨퍼런스'가 한국의 문화도시 포항을 넘어 세계적 첨단예술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태용기자

영양 들어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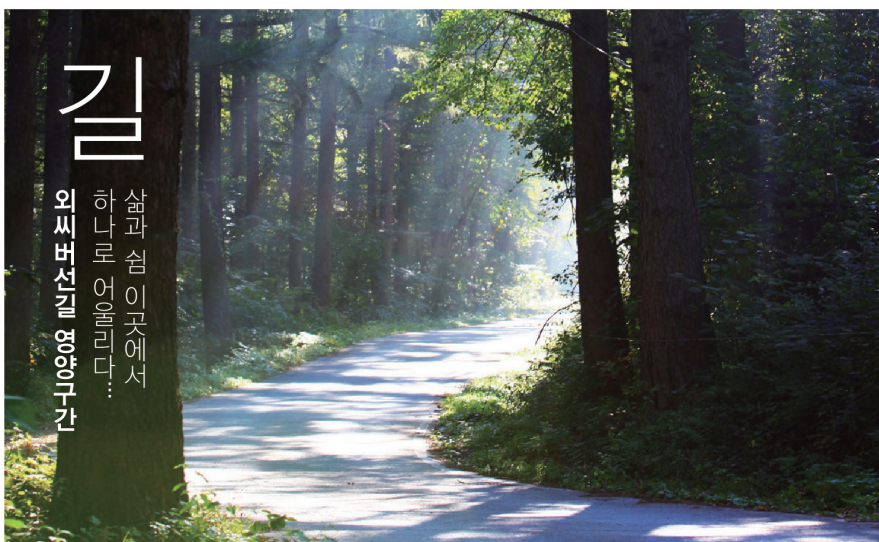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 O O 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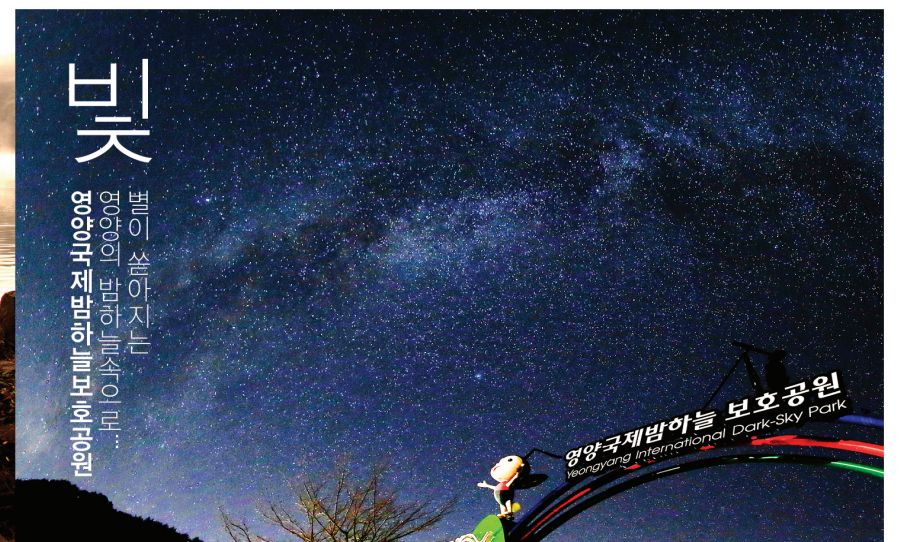
길

삶과 숨이곳에서
아름답게 영연...
영양국립자연휴양림



물

영양의 푸른빛이
영양에 영연...
영양국립자연휴양림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
영양국제밤하늘보존공원



얼

시공간의 대가
영양서석지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연서정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존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